

제438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8월26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
3. 업무보고
 - 가. 문화체육관광부
 - 나. 국가유산청
 - 다. 한국예술종합학교
 - 라. 한국콘텐츠진흥원
 - 마. 영화진흥위원회
 - 바. 한국언론진흥재단
 - 사. 한국관광공사
 - 아. 국민체육진흥공단
 - 자. 대한체육회
 - 차. 언론중재위원회
4.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국가유산청 소관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3
3. 업무보고 3
 - 가. 문화체육관광부
 - 나. 국가유산청
 - 다. 한국예술종합학교
 - 라. 한국콘텐츠진흥원
 - 마. 영화진흥위원회
 - 바. 한국언론진흥재단
 - 사. 한국관광공사
 - 아. 국민체육진흥공단
 - 자. 대한체육회

차. 언론중재위원회	
4.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1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업무보고 및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은 일괄하여 진행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결산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그리고 그 소관기관들이 국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불편 없이 향유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 예산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하거나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입니다.

박정용 행정실장입니다.

김근식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하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부 측의 출석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 이사회 참석 및 주재를 위하여 오후에 이석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은 회의가 잠시 정회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한 질의가 있거나 하신 위원님들은 출석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관련해서는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이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57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각 소위원회의 전체 위원의 정수, 위원장 및 교섭단체별 인원 배분 등에 대하여 합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 명단을 제출받아서 마련한 안입니다.

먼저 문체부제1차관 소관, 국가유산청 소관 법률 심사를 담당할 문화예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부제2차관 소관 법률 심사를 담당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께서 소위원회를 맡고 위원 수는 총 7인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아 주기로 하였고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용근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총 5인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양 교섭단체 간사님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혹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향후에도 소위원회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면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입니다마는 해당 안건은 여전히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어 조율 중입니다. 간사님들 협의를 이어 가기로 하고 오늘은 상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국가유산청

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라. 한국콘텐츠진흥원

마. 영화진흥위원회

바. 한국언론진흥재단

사. 한국관광공사
아. 국민체육진흥공단
자. 대한체육회
차. 언론중재위원회

(10시09분)

○위원장 이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가유산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기관 업무보고해 주실 때 너무 자세히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될 수 있는 한 좀 줄여 주십시오.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 저희 위원회 의사일정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 이미 각 의원실로 배부되어서 또 위원님들 검토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이정문 간사님, 조은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정책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성실히 경청하여 문체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제1차관입니다.

김대현 제2차관입니다.

김기성 차관보입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입니다.

김도형 종무실장입니다.

공형식 국민소통실장입니다.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입니다.

임영아 대변인입니다.

남가영 감사관입니다.

이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명수현 문화정책관입니다.

이용신 예술정책관입니다.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최성희 콘텐츠산업정책관입니다.

김경화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입니다.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입니다.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입니다.
 장경근 소통정책관입니다.
 권수진 소통지원관입니다.
 이정은 디지털소통관입니다.
 이은복 해외홍보정책관입니다.
 강동진 관광정책관입니다.
 김진희 국제관광정책관 직무대리입니다.
 이선영 체육국장입니다.
 강대금 체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소속 및 공공기관입니다.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입니다.
 이범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입니다.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한상준 영화진흥원장입니다.
 김호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입니다.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입니다.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체부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10쪽 향후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부는 올해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를 구축하고, K-컬처를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며 K-관광 4000만 시대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스포츠, 국민중심 정책 소통을 중점적 과제로 삼아 힘을 쏟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기초예술의 뿌리를 다져 문화강국의 토대를 튼튼히 세우겠습니다.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제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술활동준비금을 비롯한 예술인 복지를 촘촘히 뒷받침하고,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초예술은 오늘날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의 근간입니다. 우리 기초예술이 튼튼히 뿌리내리고 다양한 줄기를 뻗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창작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여건과 경력단계를 살펴 지역 예술인과 신진·유망 예술인이 두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창작지원만큼이나 문화향유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청년문화예술패스, 아동·청소년을 위한 꿈의 예술단과 같은 사업을 통해 국민들 각자의 삶의 속도에 맞게 가장 필요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과 15쪽입니다.

K-컬처를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다시 게임에서 공연으로 무한히 변주하며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는 원천 IP를 육성하고 정책금융 확대,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 성장의 기반을 열심히 다지고 있습니다.

K-컬처 확산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고 창작자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긴급 차단체를 시행하고 국제공조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I 학습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처럼 AI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창의성과 다양성의 원천이지만 대중시장에서는 외면받기 쉬운 독립영화, 인디음악, 인디게임 등 인디 콘텐츠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8쪽과 19쪽입니다.

외래 관광객 4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공항·항만 인프라를 확대하고, 양질의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K-컬처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하이엔드 상품이나 의료·뷰티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도 키우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반값여행, 반값휴가, 관광주민증 등 국민 여행 활력 3종 세트로 더 많이 여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역 명소를 발굴하는 100×100 사업 등을 통해 지역관광의 숨은 매력을 더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10월 아시안 패러게임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주요 게임대회에 참가하는 데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 대회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입니다.

전 국민의 운동 습관화를 위해 스포츠 참여 인센티브인 튼튼머니를 점진적으로 넓혀가겠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도 개보수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도록, 운동이 습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날씨에 제약 없이 대규모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를 열 수 있는 중·대형 복합형 돐구장 조성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프로리그 및 구단 지원, 유소년·아마추어 저변 확대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24쪽과 25쪽입니다.

KTV를 디지털 기반의 정책 전문채널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소통 우수사례 평가에 온라인 국민심사를 도입하여 국민 참여를 넓히고, 국민 맞춤형 디지털 소통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2027년 7월 말부터 전 세계 카톨릭 청년들이 함께하는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체부는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으며 K-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강국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체부의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문체위 위원님들의 응원과 관심, 진심 어린 조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개최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법률들의 제·개정, 문체부 소관 예산의 확대 그리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구체화하는 데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또 정기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이번 22대 하반기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가유산청의 간부들을 총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님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하십시오.

최보근 차장입니다.

채수희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길배 유산정책국장입니다.

윤순호 문화유산국장입니다.

김동대 역사유적정책관입니다.

황권순 자연유산국장입니다.

이종훈 문화유산국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6년 국가유산청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3쪽,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협약 가입 38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162개국에서 총 3200여 명이 참가하였고, 개최국 처음으로 운영된 대한민국관은 10일간 내외국인 약 13만 7000명이 방문해서 K-헤리티지의 독보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

동 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이 2021년 등재에 이어서 2단계 확대 등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번 세계유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주신 문체위 위원님과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성과 부분은 가 자료로 같음하고 7쪽의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국가유산청은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보존·전승기반 강화를 하고, 국민의 삶과 조화롭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국가유산,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K-헤리티지 세계화, K-컬처 기반인 K-헤리티지 산업 육성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정책기반을 견고하게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보다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된 분야하고 50년 미만된 우리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비문화유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는 문화·자연·무형유산별 위원회 3개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개편해서 137명의 국가유산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안전관리 분야는 재난 현장을 보다 빨리 강화하고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서 국가유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 재난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긴급보수비 지원체제를 개선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형화되고 고속화되는 산불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구 서울역사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서 보수·복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국민들께 본래의 서울역사를 돌려드리고, 동·식물 유산이라든가 지질유산이라든가 명승 등 자연유산 분야별 맞춤형 보존관리도 전문성 있게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전승단절위기 종목에 대해서 미래 전승자 발굴을 확대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소멸위기지역 대상을 무형유산 일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무형의 미래 자산이 잘 되도록 확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 일상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유산 상생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현장 합동지원단과 사전영향평가 등 규제허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발히 운영해서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택 등 국가유산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리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입니다.

전국 곳곳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지역 정비를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경주 황리단길 같은 정비 모델을 이제는 9대 역사문화권으로 확산하고, 기초단위부터 광역단위를 잘 정비해서 낙후된 국가유산지역이 이제는 매력적으로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권 투어라든가 미디어아트, 국가유산 야행 등 야간에 특화된 콘텐츠를 확대하고, 자연유산 원정대 캠페인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그러한 관람객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택 등 문화유산 대상으로 하여 고품격 K-스테이 인프라를 조성해서 체류형 관광자원화 등 국가유산 활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관광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짜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금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여서 위원국 전체로 채택된 부산선언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27년부터 부산포럼을 정례화해서 세계유산 분야 국제리더십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올해 11월에는 단원고 4·16 아카이브,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을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에 등재시키고, 12월에는 한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K-헤리티지의 세계를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궁능 관람객이 1781만 명을 넘어서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427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궁중문화축전 등 궁궐 대표 프로그램을 이제는 세계인이 찾는 그러한 K-궁궐 대표 브랜드로 도약하겠습니다.

경복궁 안에는 굿즈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표 상품관을 조성하고 해외 거점 홍보를 위해서 뉴욕에 이어서 올해 10월 초 파리, 세계문화 중심지에서 ‘코리아 온 스테이지’를 개최합니다.

17쪽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산 보존역량을 바탕으로 인류공동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집트, 페루, 가나 등 다양한 국가와 ODA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수중유산 분야 조사에서는 독보적인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베트남과 몽골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후속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외유산의 환수전략을 다각화해서 중요유산을 환수하고 현지에서도 우리 유산의 가치가 잘 보존되도록 소장기관과 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올 8월은 지난번에 언론에서 공개한 환수유산 가운데서 안중근 의사 유묵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9월 하순부터 60일 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K-컬처의 기반인 K-헤리티지 산업 활성화 기반을 위해서 국가유산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 간 동결된 궁능 관람료 현실화를 위해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관람료 기준을 11월 중에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변경된 관람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 종묘와 태릉 같은 주변 사업에 대해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입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통해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0시27분)

○위원장 이재정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보고 듣고 의사진행발언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이재정 진행에 관계 없으시면 일단 보고부터 먼저 하고……

○조은희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먼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결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이경문 간사님, 조은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개요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의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같음하고 9쪽의 2025회계연도 결산 개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구조는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총수입 규모는 3조 7737억 원이고 총지출 규모는 7조 1224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133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589억 원보다 256억 원 적게 수납

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3조 4093억 원으로 예산현액 3조 5113억 원 중 427억 원은 이월되었고 594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 규모는 26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376억 원보다 115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4560억 원으로 예산현액 5076억 원 중 18억 원은 이월되었고 498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세입 규모는 137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436억 원보다 64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1163억 원으로 예산현액 1363억 원 중 92억 원이 이월되었고 108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지출 규모는 예산현액 3조 3706억 원 중 총 3조 2841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97.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게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결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가유산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같음하고 3쪽 결산 개관 총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재정 구조는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리고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세입과 수입 결산액은 총 621억 원이고 세입과 지출 결산액은 총 1조 3785억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규모는 47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676억 원보다 199억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현액 1조 2410억 원 중에서 1조 2063억 원을 집행하였고 158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189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7억 90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296억 원 가운데 295억 원을 집행했고 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보호기금 수입·지출 실적입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은 복권기금 전입금, 지정 국가유산 관람료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쪽, 21쪽입니다.

기금 수입은 자체수입 136억 원, 정부내부수입 1530억 원 등 총 1926억 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사업비 1425억 원, 정부내부지출 154억 원 등 총 192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중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과 관련하여 결산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총 47건의 사항 중 주요 사항을 기관 및 유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중 집행 부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은 2024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이후 2024년과 2025년 모두 집행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이용 가능 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 등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공공건축 심의 등 다수의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 및 지방비 매칭 지연 등으로 실행이 매년 반복하여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실제 이행 여부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수준 등을 보다 엄격히 검증하여 집행 가능성이 확보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등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법령 및 지침 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정보화사업을 전용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완료 이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한 예산안 작성지침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문화예술기금 기관운영비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4년과 2025년 실시한 워크숍에서 국내여비와 관서업무비로 집행해야 할 사항과 현금성 물품 성격의 상품권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예산 비목별 용도와 사용 범위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온누리상품권 외의 현금성 물품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신기술 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K-콘텐츠 AI 혁신 선도 프로젝트의 사업 기간이 국가재정법상 결산 제출 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결산심의 시 최종 집행실적 확인을 제약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향후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결산시한을 준수하도록 사업기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유사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게임산업 육성 사업은 게임인재원 모집 규모 확대 이후에 진로 재설정으로 인한 중도 탈락률이 37.2%까지 급증하여 선발 및 교육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도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발 단계에서 지원자의 진로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고 입학 후 학습 적응을 돕는 멘토링을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사업은 완성보증 상품의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액 폭증에도 불구하고 보증잔액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고 채권회수율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신규 보증 심사기준 강화, 사전 담보 및 상환 자원 확보, 채권 추심 역량 제고 등 재정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은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체코문화원 신설 사업 관련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일부 예산만이 재외한국문화원 운영경비로 전용되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주재국과의 협의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사적관리 사업의 국가유산경관개선과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고도탐방거점 조성 내역사업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및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순연됨에 따라 실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시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집행 가능성 및 소요자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적절한 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국가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의 신안 해저유물 방문자센터 건립 지원과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사업은 건립부지 변경 추진, 건립위치 조정 필요성 등에 따라 공사가 전액 이월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 수립 시 소요 예산을 면밀히 추계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의가 필요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의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는 사업을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총액계상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별 예산 규모 및 세부 편성항목에 대한 국회 심의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보존 및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예산의 세부내역을 미리 검토하여 편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사업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제2차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건의 검토사항 중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집행부진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사업,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등은 사업계획 수립 미흡,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실행이 부진하고 보조금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사업은 원주, 남양주 등 다수의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당성조사,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단계별로 사업 지연과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의 집행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신규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적립하고 스포츠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센티브 사용을 위한 편의성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은희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해 주셔서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대한축구협회가 우리 위원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 증언감정법상 제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확인해 주셨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협회는 국민과 축구 팬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버티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2023년 기습 사면 사태입니다. 백지 안전으로 30분 만에 비리 축구인 100명을 사면 의결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본인이 주재한 이사회에서 이것을 의결하고도 상벌위원회 같은 데서 했다고 생각된다며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했습니다.

명단은 누가 작성했는지,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할 내부 결재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소송 중이라 제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의원실이 거듭 연락하자 이제는 경영본부장이 검토 중이고 전무이사나 부회장 검토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회피합니다.

위원장님, 국회가 축구협회 경영본부장 결재받고 일하는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 100명을 골랐는지 보은 사면의 실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비단 저희 의원실만의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축구협회에 분명히 경고해 주십시오.

지난 청문회 당시 장관님께서도 이것을 감사 사안으로 다루겠다 약속하신 건입니다. 그러니 문체부도 ‘협회가 제출 못 하겠다고 그런다’ 그대로 전달만 하실 게 아닙니다. 이 자료를 직접 징구해서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서 한 장 못 내놓는 조직에 어떤 혁신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조은희 간사님 지적, 충분히 하실 말씀입니다.

당일 축구 청문회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경고드렸습니다. 국회의 권능은 또 국감만 남았겠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 문제들 점검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에 대한 고발조치 아직 점검하는 중입니다. 어떤 행위가 모욕행위가 되는지 그간에 살펴봤던 사례만으로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법률적 해석,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엄중히 생각하시고요.

장관께서도…… 국회의 노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은 집행입니다. 정부가 부당한 간섭이나 자율성에 대한 침해는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박문성 해설위원과 박동희 기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겸 강원FC 대표가 박문성 참고인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 가면서 청문회에서 다루어진 사항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 문제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개인 간의 공방에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국회에 출석해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증언하고 의견을 밝힌 참고인이 그 발언을 이유로 사후적인 압박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누가 국회에 나와서 내부 문제를 증언하고 공익을 위해서 용기 있게 발언을 하겠습니까? 특히 청문회에서 제기된 비위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과 자료로 답해야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국회 참고인과 공익제보자의 정당한 발언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 문제 엄중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잘 들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분 중에 박문성 씨에 대해서는 지난 축구 청문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적인 영역에서 공론화된 사안에 대해서 사실 개별적인 설명보다는 공적으로 해명해 주시고 불필요한 논쟁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을 외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논쟁이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도 함께 드립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신청 없으시니까요. 대체토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 드립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는 첫 시간이지만 지난 축구 청문회 과정들을 지켜보신 피감기관 여러분도 계실 테고요. 또 위원님들도 이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오전에 질의하시는 것을 전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고 때로는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실지라도 그것 역시도 위원님이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답변시간 굉장히 요약해서 해 주시는 것도 피감기관이 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부족한 보충질의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종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최휘영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협회장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것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대한축구협회……

○노종면 위원 지금 종목을 밝혀도 되는 단계인가요? 아무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제가 들은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노종면 위원 일단 언론보도는 협회 어떤 종목인지는 안 밝혀졌는데 일단 저는 종목을 가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문제가 있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 조직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언제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신속한 절차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해야 되는 거고요. 별도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사와 관련해서도 피감기관에 대한 정부나 또 대한체육회의 입장이 나와 줘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하나…… 모든 사안은 신중하게 처리돼야 되지만 이것은 이미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보도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보신 대로 신체 접촉을 여성 직원에게도 남성 직원에게도 하는 장면입니다. 이 피해 직원들이요 다 수습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박수도 치고 분위기를 맞춰 주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속된 저런 신체 접촉에 직원들이 불쾌해하고 문제를 인식한 상황들이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해임 사태까지 나는데요. 저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하나 듣고 이후의 일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언 내용은 요약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PPT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 술을 원샷을 안 하나’, 그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회식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못 한다’ 여성 직원에게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반응을 해라’…… 이런 자가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의 협회장이라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가해자가 보도된 사실관계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보도된 내용으로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던데 이것도 조사 과정에서도 정확히 확인되어야 될 내용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건을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PPT 넘겨 주세요.

문제의 회식이 있었던 날은 4월 9일입니다. 수습 직원들이 피해자였고요. 이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동영상 보신 그대로고요.

석 달 뒤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일부와 그 상황을 목격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임이 곧바로 취소되는데 해임을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권한남용 내지는 절차 위반이 발견됐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해임 취소를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장관님은 해임 조치 과정에서 있었던 이 심각한 절차 위반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간단히 요약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수습에 대한 평가 권한이 협회장한테는 없는데 협회장의

점수까지 포함시켜서 계산을 했더니 해임 취소자가 발생을 한 거고요. 뒤늦게 회장은 평가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회장 점수를 빼니까 해임된 사람들이 다시 합격권으로……

○노종면 위원 맞습니다.

4월 9일에 회식에서 성추행이 일어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7월 9일에, 석달 뒤에 해임을 하는데 이 해임의 사유로 제기됐던 저평가, 이 저평가는 바로 가해자인 협회장의 점수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협회장은 아예 평가할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님 나와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노종면 위원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이 가해자인 협회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아직은 유지는 하고 있지만 대행체제로 지금 사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사실상 대행체제라고 하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주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직무를 형식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주요 사안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우리 의원실에 인정했습니다. 대행체제 아닙니다. 용어 사용에 주의해 주시고요.

문체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그게 대한체육회로 넘어오면 스포츠공정위에서 받게 되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스포츠공정위는 징계 권한이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으로……

○노종면 위원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협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노종면 위원 잘못 아셨습니다. 독자적인 징계 권한이 대한체육회에 있습니다. 이것 확인하시고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들어가십시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장관님하고 회장님, 두 분 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아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고 동영상까지 보여 드린 대로 매우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협회는 가해자가 지금 회장으로 있고요. 상근자가 소수가 근무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들이예요. 이 사안이 빨리 해소가 안 되면 피해자들이 피해를 추가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도…… 또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 종목 자체 그리고 이 종목을 사랑하시는 수많은 분들, 여기에 종사하는 선수들, 관계자들, 피해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고요. 협회장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퇴하고 수사받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를 출신 김승수입니다.

올해 3월 4일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주최로 모두의 케이팝 행사가 진행되었고 김혜경 여사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경과를 살펴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한 점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연간 계획을 보면 3월 달에는 모두의 케이팝 행사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 19일 날 수정 계획안이 만들어졌는데 7월 달에만 하기로 했던 모두의 케이팝이 3월 달에 추가가 되고 또 예산도 50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추가됐는지 누구 지시인지 관련 공문이나 결재서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전혀 설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행사가 추가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해당 행사는 2023년부터 필리핀 주재 문화원에서 매년 2회씩 개최를 해 온 정례적인 행사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 왔던 건데 갑자기 한 번 하기로 했던 것을 두 번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게 누구 지시로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원래 2회 하는 게 정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2회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것 보세요. 1월 달에 당초 계획에는 7월 달에만 하기로 했던 게 2월 19일 날 갑자기 2회로 늘었고 5000만 원이 누구의 지시로 어디에서 왔는지도 전혀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관광공사도 협력업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상당의 후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행사 준비 과정도 굉장히 의문 투성이지만 또 3월 4일에 진행된 행사 진행을 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게 지금 대통령 영부인이 참석한 행사인데 관련되는 행사 영접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참석하는데 문화원에서 아무런 행사 계획을 안 잡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저것은 영부인 참석 때문에 기획된 행사가 아니고요. 매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참석을 하면 영접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의 동선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자료를 하나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더 기가 막히다고 한 이야기는 이때 케이팝 공연을 해 가지고 거기

의 수상자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시상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당초에는 우승자에 대해서만 한국 방문 기회를 준다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김혜경 여사가 발언을 하면서 원장님한테 ‘우리 원장님, 공연한 친구들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인데 어떻게 딱 한 팀만 한국 갈 기회를 주느냐? 공연한 모든 팀—서른세 팀이 아마 참석한 것 같습니다—다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다 주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대통령 영부인이 한마디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미 하루 전날 행사 계획을 보면 33명 모두에게 방한 항공권을 주는 걸로 이미 사전에 그냥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 여사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 대통령 여사 때문에 다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자 이미 이렇게 말을 맞춘 거지요. 말 그대로 대통령 영부인과 필리핀 한국문화원이 필리핀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마치 사기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이 부분은요 연초에 이미 계획이 돼 있던 내용이고요. 이 일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참가자 33명을 다 한국에 방문시키기로 연초에 계획이 돼 있던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왜 대통령 영부인이 마치 우승자만 가도록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사전 보고가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것은 현장에서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출이었지 원래는 다 돼 있던 거고요.

○김승수 위원 이게 사기지 무슨 연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이걸로 인해서 늘어난 예산이 없습니다. 원래 예산안에 이미 책정이 돼 있던 겁니다.

○김승수 위원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5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난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작년에 출범할 때 근거법령 제정,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불법·편법·탈법이 완전히 총출동된 겁니다. 당시에는 출범식과 위원회 근거법령, 시행령 제정과 또 예산 이용 그리고 출범식의 용역업체 계약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보여 주기식 위원회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그래요. 작년에 한 10억 가까이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그 예산의 한 절반 정도를 출범 행사에 사용을 했고 나머지 한 40%는 사무실 조성에 사용됐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 이런 것들은 6.7%밖에 안 돼요. 박진영 위원장은 명예직으로 그냥 비상임위원으로 무료 봉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사무실이 그 종로 알짜배기 건물에 35평짜

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장을 갔는데 1등석으로 갔다 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보면 숙박비…… 해외출장 갔다 오면 공무원들은 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증빙서류 이런 것들을 전혀 제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비가 당초 한도를 초과하니깐, 초과한 숙박비 청구한 것의 85%를 지급하는데 그냥 영수증 없이 구두로 청구한 겁니다. 장관님, 이런 일이 공무원들한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아니요, 규정대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김승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서 지금 주요 행사로 한다는 것이 27년, 내년 12월에 창동에서 패노메논이라는 그런 행사를 대규모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케이팝 공연하고 팬덤 시상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딱 보면 어떤 기시감이 드느냐? 81년도에 전두환 정권에서 국풍81 행사한 게 있습니다. 광주 5·18 1주년 기념을 한다고 했었는데 5·18로 인한 민심 악화를 딛 데로 돌리기 위해서 했던 게 국풍81입니다. 이것도 28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호도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데 국가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절대 반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 다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정 간략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출범 첫해 예산 중의 상당 부분이 출범식과 사무실 마련하는 데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출범할 때가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밖에 안 남은, 석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행사는 개회식, 출범식이었고 또 하나는 사무실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 비중이 높았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해명 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한 10억 정도 예산에 단 1회성 출범식에 4억 4000 쓴 것 아닙니까? 그때가 또 그때니까, 행정시스템이 국가데이터센터 화재로 다 마비돼 가지고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런 이벤트성 행사 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정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이벤트성 행사라기보다는 K-컬처를 전 세계에 있는 팬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행사로 기획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출범식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갔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박진영 씨의 출장경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철저히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고 증빙자료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왜 증빙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제출 안 합니까? 하나도 제출

못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재정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제가 시간이 마무리된 다음에 추가시간을 드릴 때는 한 30초 정도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추가질의를 하시더라도 거기에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속기록에는 남기는 하지만 제가 충분히 시간 내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 못 하신 걸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송에는 나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여튼 시간 제한 다시 한번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장관님, 2027년 WYD 세계청년대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니다. 범정부 지원 차원에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은 지금 어디까지 가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에서 지금 위원회를, 거기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워낙 대형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지 출입국 관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체부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말씀드린 거예요. 범정부 지원 차원에서 문체부가 책임과 권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문체부가 범정부 대응하는 위원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차관님께 질의할게요.

올해 3월 광화문 BTS 공연, 우리가 26만 인파가 몰린다고 해서 공공인력이 한 1만 명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제로는 4만 명 수준이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1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임오경 위원 준비는 저희가 철저히 하게 했지만 정작 예측이 빗나간 상황이에요.

그렇더라면 WYD 참가 예상 인원은 지금 현재 국내 100만 그리고 해외에서 40만이 방문한다라고 지금 저희가 예측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해외 40만 포함해서 100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140만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근거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대치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한하셨을 때 모인 규모를 추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월 폭염 속에 100만 인구 이상이 지금 몰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대회가 하나 있었지요, 3년 전에 잼버리대회. 이런 게 리바이벌되지 않도록 해외 청년들에게 문화 강국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 주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시 저는 문체부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선상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같은 시기에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또 개최가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약간 겹칩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은 준비가 잘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차관입니다.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장 사퇴 이후 현재까지 위원장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곧 임명이 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도 아직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옛날에 총사업비 할 때처럼 KDI에서 검토를 거쳐서 요청하면 좋겠다 해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들어가도록 협조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인데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내년 정부안에 지금 이게 담기지 않았다는 것은…… 110억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11억입니다.

○임오경 위원 110억인데 지금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그러면 국회 증액으로 또 떠넘길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기획예산처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임오경 위원 내년도 대회인데 이 110억 국비가 내년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장관님,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래서 저희도 기예처랑 계속 협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KDI, 비효율 문제 때문에 협의를 다시 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오경 위원 WYD 세계청년대회는 범정부 지원 차원에서 그래도 부처 간에 저희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저희가 문체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을 다 맡아야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후원사 유치의 경우도 목표치의 한 47%밖에 지금 못 올린 저조한 성과고요. 그렇지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후원사 부분도 이번에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가속화시켜서 빨리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후원금도 한 12억밖에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향후 후원사는 어떻게 유치할 예정인가요? 차관님이 이것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 부분은 아무래도 새로운 위원장님이 또 오셔서 크게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임오경 위원 이게 조직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된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공석일 때 문체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여 줘야 되고 제가 여기서

또 문제점을 한 말씀 더 드리는 게 여기가 충청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다 보니까 충청권 4개 지자체가 협조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협조 지원을 조직위원장이 갑자기 임명된다고 해서 임명된 조직위원장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새롭게 임명되는 신입 조직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문체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지자체장과의 협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 지원 인력은 얼마나 동원할 것인지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당분간 국제 이벤트 대회가 국내에서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라면 이게 세계청년대회(WYD) 그리고 유니버시아드대회 이 두 개가 결국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대회 유치하는데 저희가 유치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대회를 잘못 치르게 되게 되면 저희는 더 이상의 국제 이벤트 대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정부 차원에서, 문체부 차원에서 지자체장들과 협력회의 열어 주시고 공공 인력들, 공무원들 얼마나 인력이 배치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주시고 후원사 이런 부분들도 적극 나서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최근에 충남·충북지사를 제가 만나서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최근 장관님,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복상점 직접 방문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임오경 위원 방문하는 것을 봤을 때, 지난 8월 5일 청와대에서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좀 제가 살펴봤더니 K-pop, 영화, 게임, 방송, 출판은 물론 푸드, 뷰티, 패션까지, K-컬처 해외 진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복상점까지 방문을 하셨는데 한복 글로벌 패션 산업 연결, 해외로 진출 이런 부분들은 정책에서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내년부터 한복산업진흥법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고 내용에서는……

○임오경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래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우리 한복에 관련된 정책 사업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국악에 대해서도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한복과 국악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도 좀 다시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용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파크골프 산업화 관련해서 최취영 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가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파크골프장은

2020년 254개에서 2025년에는 552개로 5년 만에 117% 이상 증가했고 대한파크골프협회 등록 회원도 같은 기간 약 4만 5000명에서 22만 9000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마 미등록 이용자 수까지 더하면 양적 확대는 훨씬 더 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부도 파크골프 성장에 맞춰 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주었고 그린벨트 내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파크골프장만 짓는다고 해서 동호인들의 이용이 편리하거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급증하는 회원에 맞춰 파크골프장을 더 확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많은 동호인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도 국민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 스포츠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장관님, 그러면 현재 문체부가 파크골프장의 시설, 운영, 요금, 안전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관리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아쉽게도 종목별 체육시설 건립 사업이 23년에 지방이양돼서 저희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좁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파크골프장은 대부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공공 생활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구장 자체는 만들어 놓고 정작 그늘막,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나 파크골프라는 종목은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만큼 화장실, 휴게시설, 그늘막, 주차공간 같은 기본 편의시설이 회원수와 이용률이 직결된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동의는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동의합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이 파크골프장과 같은 주요 사업 예산들이 지금 전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의 신설 그리고 노후시설의 개보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한시적 또는 차등적으로라도 정부의 체육진흥기금 등을 활용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매우 즐기고 있는 스포츠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특히 또 노년층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로 중앙정부가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안전기준도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한 지원을 국비로 지원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체육시설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안전, 위생 기준, 보험 가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이용자의 부상 경험

이 22.5%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이용 비율이 높은 시설인 만큼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관님, 잔디, 코스 관리 기준, 타구 안전거리, 안전시설, 응급 대응체계 등 파크골프장에 특화된 최소 안전기준을 정부가 적극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 문체부에서는 지금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파크골프를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지적하자고 하는 것은 규제를 늘리자는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최소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서 차등 적용할지라도 파크골프에 맞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은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윤용근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서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파크골프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도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파크골프 이용객은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숙박, 음식점 이용, 전통 시장, 지역 특산물 소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파크골프장을 단순 생활체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관광자원 및 생활인구 유입 기반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혹시 문체부 차원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확대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거나 혹시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아직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 주셨듯이 골프 여행도 관광에 아주 좋은 콘텐츠가 되듯이 파크골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다면 파크골프장 방문객의 체류 기간, 숙박, 외식, 지역상권 소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이 만들어지면 또 저한테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장관님, FIU에서 카지노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제도개선을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9월 내에 입법예고되고 연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조만간 유관 부처인 문체부에서 의견 조회할 거라고 하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PPT 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법령상으로는 카지노칩만을 금융거래 수단으로 정의를 하고 1회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 고객을 확인하고 1000만 원 고액현금을 거래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개정안은 금융거래 정의에 카지노칩 외에 티켓, 토큰, 바우처 추가를 했고 기존 1회 기준이던 거래액을 1일 누적 총거래액 300만 원 이상 고객 확인, 1000만 원 고액현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이 돼 있습니다. 기존 안에도 출입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연간 3일 이상 출입 시에도 고객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전면 회원제 강제하고 모든 고객의 신원 정보하고 게임 내역을 기록할 경우에 사실상 카지노 전면 회원제 도입이 되는 셈이고 내국인 고객이 감소할 경우에 불법도박, 해외 원정 도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실제로 코로나 당시에 강원랜드 등 합법 도박장이 문을 닫은 적이 있었는데 불법도박 사이트가 창궐을 했고 불법 온라인 도박이 성행을 했었습니다. 22년 사감위 실태조사 당시 기준으로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1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고요. 반면에 카지노, 경마, 경륜 등 합법 도박 시장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에 강원랜드의 매출이 1조 4000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 매출을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이러한 매출 감소가 공익 부담금 감소로 연결이 되게 됐는데요. 카지노 매출액의 13%를 폐광기금으로, 10% 정도를 관광기금으로, 0.35% 정도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납부 중입니다.

폐광기금의 유일한 재원이 강원랜드 카지노 부담금 납부가 되는데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폐광기금이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전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 화면 한번 보시면요.

폐광기금의 경우에 폐광지역 4개 시군, 정선·영월·태백·삼척에 총 177억 원 정도가 부담이 되고 정선군은 특히 강원랜드 배당금을 시군비 재원의 핵심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인당 한 15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인구소멸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문체부 산하기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 재원 역시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입니다. 청소년 불법도박이 10년 새 급증하고 치유 상담 인원도 폭증한 반면에 예방치유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예산은 매년 축소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유관 부처로서 이번 관련된 법 개정이 도박 중독 치유 사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아무래도 국내 카지노 업계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매출이 또 이 기금이나 여러 가지 정책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과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요. 저 부분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실제로 2020년도에 국제기구 상호평가 내용을 한번 보니까 우리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 확인 등 의무사항을 원활하게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자금 세탁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 자금세탁 관련된 제재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실제 문제 제기가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권고안을 과도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시범 실시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실제로 매출 감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한 이후에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이 부분이 당초 입법예고 예정이었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직 의견 요청이 안 왔는데요. 오면 긴밀하게, 위원님 우려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상의를 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요.

콘텐츠산업 수출 중에 게임이 굉장히 호자 산업 맞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보니까 K-pop 수출 규모보다도 4.7배, 5배 가까이 높고요. 영상 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7배에 달합니다. 전체 한국 수출 주요 품목 중에서도 14번째로 가전 80억 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게임 산업 성장률이 매년 감소 추세로 23년에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게임 이용률이 74.4%에서 24년도 기준으로 60%를 하향하고 있고요.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모바일게임 매출 상위 10개 중에서 5개는 중국산 게임입니다. 중소기업의 72%에서 90%는 수출도 없는 상황이고요. 중소 게임회사 폐업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를 뭘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의 큰 흐름들이 바뀌고 있고 사용자들의 게임 이용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산을 비롯한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의 핵심인 게임 쪽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중소기업들의 게임 산업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투자를 잘 못 받기 때문인데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보니까 콘솔게임이나 PC게임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정도 제작 기간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펀드 출자비율이 60% 정도로 돼 있는데 한 70% 정도로 조금 늘려서 상향을 해 주면 민간자본 매칭이 조금 더 쉬워지고 투자가 원활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계정에 영화계정이 따로 있는데 게임계정도 한번 따로 별도로 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업계의 의견이 자주 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희도 계속 건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모태펀드에서

정부 출자비율을 60에서 70으로 올리는 일은 사실 그렇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영화나 애니도 60%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혹은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사용 전체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드는 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는 지금 오히려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우선손실충당이라든지 초과수익 이전 같은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서 민간의 투자금을 받아오기 위한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게임계정 독자적으로 만드는 부분도 사실 이 펀드 내에서의 융통성 문제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넥슨이 추가로 돈을 집어넣어서 같이 매칭으로 자펀드를 만든.....

○위원장 이재정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게임 전용 펀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좀 더 지원이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님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병지 강원FC 대표가 지난 7월 31일 730억 원 홍보 효과, 투자 대비 5배 성과를 주장했는데요. 산출 근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730억이 실제 매출이나 경제적 부가가치가 아니라 중계 화면 광고 노출 광고비로 환산한 그런 금액입니다. 중계 화면에 노출된 입간판과 유니폼, 로고 등의 노출시간에 TV 광고단가와 시청률 등을 적용해서 이 시간만큼 TV 광고를 했으면 얼마나 나왔을까 이런 가정하에 계산한 광고 환산 가치에 불과한 주장입니다. 해외 중계 효과에는 실제 해외 시청자 수를 확인한 실측치가 아니라 추정값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김병지 대표가 주장한 투자 대비 5배 효과, 5배 효과를 냈다는 건데요. 5.08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2025년도에 강원도와 관내 시군이 집행한 약 144억 2600만 원 기준으로 전체 미디어 광고 효과의 약 732억 6300만 원을 비교해서 산출한 수치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가장 큰 재원을 부담한 강원도는 120억을 지원했어요. 강원FC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산출된 광고 효과를 합해도 약 103억 9000만, 투자액 대비 0.87배입니다. 반면에 철원군은 86.81배, 영월군 84.86배, 삼척시 79.75배 등 일부 시군에서는 80배 안팎으로 광고 효과가 산출이 됐습니다. 120억을 지원한 강원도는 0.87배인데 일부 시군은 80배가 넘어요. 여기에 실측치가 없는 해외 중계 추정값도 포함돼 있고 이러한 시군별 광고 효과를 모두 합산한 결과가 전체 5.08배라는 겁니다. 120억 투입한 광고는 0.87배인데 전체를 5배 성과라고 하는 이런 산정 방식이 옳다고 보십니까? 합리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 쓰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한데 저 부분이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합리성,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려면 조금 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원 위원 예, 합리적이지가 않지요.

또 도비 의존도를 낮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자체수입 대비 도 보조금 비중이 낮아졌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액을 한번 봤습니다. 도비는 2021년에 110억 원, 22~25년에는 120억 원, 올해는 130억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지요. 실제 지원액은 오히려 20억이 늘어난 건데 더군다나 최근 5년간 115억 원에 달하는 강원도 내 시군 광고비 역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 투입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 광고비를 자체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체수입 규모를 키우고 결과적으로는 도 보조금 의존율을 낮춰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 만들어 냈어요. 결국 공공재정은 더 들어갔는데 산식상으로는 재정 의존도 낮아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장관님, 그냥 이렇게 실질적인 재정자립이 아니라 이것은 지표상의 분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의 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시민구단에 수백억 원의 공공재정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실측 없는 광고 환산액을 실제 경영 성과처럼 홍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문체부가 실제 수입과 광고 환산 가치를 구분하고 실측치와 추정치를 공개하도록 시민구단에 통일된 성과 고시 기준 마련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저희는 시도 구단 자체는 계속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시도민 구단 재정자립도 평가할 때 단순히 보조금 의존율이 아니고 보조금, 출연금, 지자체 광고비 등 전체 지방재정 투입 규모와 자체수입을 동시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7월 30일 청문회에서 대한축구협회 퇴직공직자 재취업 상태 질의드렸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김재원 위원 그런데 PPT 보시면 이후에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8월 21일 자로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 알림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받았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 공문을 보면 핵심이 명확하지요. 대한축구협회는 이미 취업심사대상기관인 거예요.

다음 PPT 보시면,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협회 역시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K리그 구단 중에 다섯 군데가 이미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요 대한축구협회 역시 새로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취업심사대상기관입니다.

문체부, 언제부터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송구스럽지만 이번에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저희 문체부
에서 대한축구협회에 고위공직자가 가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저희가 선언을 하자라는 내
용을 검토하던 중에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위원 인사혁신처가 매년 하반기 감독기관을 통해서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을
조사합니다. 문체부 역시 대한축구협회 감독기관으로서 매년 조사 요청을 받아 왔는데
그런데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이 사실을 알린 게 7월 30일 청문회 이후에 8월 21일입니
다. 결국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깐 그때서야 파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
입니다. 매년 조사 요청받고도 소관 협회가 취업심사대상인지 파악도 안 됐다는 얘기입
니다. 취업심사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축구협회에 차관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취업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것을 축체부 카르텔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광영진 전
차관은 축구협회 부회장을 거쳐서 현재 K리그 산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까지 맡고 있습
니다.

단순한 행정 누락으로 볼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누락이나 방치가 있었는지까지 경위
확인해 주시고 문체부 소관 협회의 전체 취업심사대상 여부 전수 점검해 주십시오. 아울
러서 대한축구협회가 청문회 전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위와 후속
조치를 서면으로 의원실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님, 집중호우 피해 입은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
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요. 관광공사 자료를 보니까 올해 숙박할인권 하반기 거제,
통영을 포함한 경남에 1만 6563장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비 100%인 추정 30만
장은 인구감소지역만 대상이라서 거제, 통영은 제외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 부분 신경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해서 추가 숙박
할인권 발행할 수 있는지 한번 별도 관광 회복 지원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이번에 거제, 통영 지역을 포함해서 경남 지역에 숙박할
인권이 1만 7000장 배포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장관님, 세계경주포럼이 10월 초에 개최되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지 않습니까? APEC 정상회
담의 성공은 국회, 정부, 모든 국민들이 관심과 성원을 가져 준 덕분에 성공이 됐습니다.

저는 APEC 성공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전 부처가 또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경주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에서 개최된 것이 요인
중의 하나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 장소, 개최 도시를 지정할 때부터 경주, 경주에서 개최하면 세계에서 오는 정상들, 주요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문화·전통을 소개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경주로 결정이 되었고, 실제 행사 기간 중에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금관 6개를 경주에 다 모으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금관을 선물했는데 제가 루비오 장관하고 직접 식사하면서 옆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금관을 화물로 보내지 말고 전용기에 바로 실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더랍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전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경주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는 그런 칭찬을 제가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APEC 정상회담 때 경주선언이 채택됐지 않습니까?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명문화했습니다, 경주선언 안에. 아태 정상회담에서 무역·경제 분야를 주로 중심으로 논의해 왔는데 문화 분야를 이렇게 선언문에 채택을 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선언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다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APEC 성공 효과를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경주에서 지속적으로 국제문화협력을 이어가자 이런 취지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경주세계포럼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15억 이렇게 편성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행사는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 세계경주포럼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글로벌 문화창조산업포럼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경주세계포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APEC이 열렸고 그것이 경주에서 열렸고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 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것을 세계적인 포럼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주포럼을 건의했고 이게 반영이 됐는데, 그때 건의를 할 때는 앞으로 이 역사문화 경주포럼을 다보스포럼같이 만들자.

장관님, 다보스포럼 잘 알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김석기 위원 이게 경제포럼인데 그냥 다보스포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56년 동안 계속 다보스라는 곳에서만 열렸습니다. 그렇지요? 세계 정상들이 많이 참석하는 세계적인 포럼이 됐습니다. 제주포럼도 지금 21년째 하는데 장소를 옮겨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평화포럼인데 제주에서 하니까 제주포럼이 됐고 굉장히 유명한 포럼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경주포럼도 경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고 아시는 대로 석굴암, 불국사 등에서 대한민국 국보·보물, 세계유산들이 경주에는 준비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세계인들이 와서 보면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전통을 느끼고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국격을 올리자, 위상을 올리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역균형발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나눠서 내년부터 하겠다 그런 얘기는 저는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데 그것은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주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합당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 취지에.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세계경주포럼을 경주에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역사문화 분야의 다보스포럼으로 육성하는 것이 국익에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점검해 보니까 당장 10월 초에 있는 이 행사에 정부 관계자가 누가 참석하는지 아직 미정이다, 지금 문화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체부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부 예산을 21억을 들여서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데, 장관님도 참석하실 텐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게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소홀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님께서 이 행사를 문체부가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직접 관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문화인사들도 섭외도 해 주시고 또 행사 전반을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이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 명칭하고 준비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사무실에,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계원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님과 최휘영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보셨습니까? 오디세이 영화가 아이맥스 전용 카메라로 제작되어서 아이맥스 영화관이 되게 인기가 높나 봐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입장, 원래 지금 표 가격이, 정가의 열 배가 넘는 30만 원 암표까지 등장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들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보도 많이 받고 있지요? 암표 제보 창구 열었다고 하는데.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열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어제 확인한 결과는 400건이 조금 안 되는데, 390건 정도 됩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391건이나 제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암표 거래가 발견이 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서 2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이 정도 차원의 처벌밖에 불가능하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영화 장르에서도 압표근절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영화계에서는 오래전에 단관 상영할 때 이후로는 사실은 압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법의 필요성도 사실은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조계원 위원** 현재는 해야 되겠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조계원 위원** 그런데 영진위 차원에서 저거 막아 내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직접적으로 모든 걸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요즘 특수관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부분에도, 지금 공연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압표근절법이 통과가 됐는데 영화와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으로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그리고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한 관광시장의 성장무기로 박성혁 사장님은 크루즈를 꼽으셨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올해 중국발 크루즈 입항이 2.8배나 늘어났고 활황기를, 지금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수로 들어오는 크루즈도 지난해까지는 열 척이 안 됐었는데 올해에는 삼사 배 정도로 훌쩍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황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전의 호황기는 중일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가려던 배들이 한국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이런 측면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루즈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더 기울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향차가 조금씩 취소가 되고 있는 걸 발견하고 있고요. 이걸 최소화하고 오히려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4대 선사, 크루즈 4대 선사하고 얼라이언스(alliance)를 지금 추진을 해서요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향차도 늘리고 그다음에 공동 마케팅을 함으로써 모객 숫자도 늘리는 그런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여수를 비롯한 여러 주요 기항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게 대형 선사들과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을 반드시 들러야 될 필수 기항지로 굳히려면 관련 현지 설명회나 아니면 세일즈 관련 마케팅에 충력을 기울여야 되겠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띄워 보시지요.

그런데 장관님, 보시면 오히려 크루즈와 관련해서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삭감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왜 삭감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도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환영식도 열고 또 지역에 특화된 관광상품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배가 들어와야지 이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정작 이와 관련된 마케팅 예산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모객 마케팅을 최대한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내년 정부 예산에는 증액을 해 났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시간이 별로 없는데 화면부터 띄워 주시지요. K-컬처 400조 시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K-컬처 시장 규모를 문체부에서 기존의 2023년 205조 원대에서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30년 목표는 400조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콘텐츠산업이나 예술산업, K-컬처산업의 주된 산업은 오히려 2023년에 154조, 예술산업 151조, 이것들이 2025년에는 추계를 보니까 더 줄어들었어요. 22.4조나 무려 감소가 되고 있는데 시장 규모를 재정의하면서 라이프스타일산업을 반영시키면서 늘어나는 82.9조 원 이것이 추가가 되면서 2025년에는 274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리고 30년 목표치도 400조로 세웠는데 현재의 추세치를 반영하면 400조가 아니고 한 361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상 실제 산업 성장이 아닌 범위의 재정의에 따른 보여 주기식 규모 확대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는 콘텐츠산업 중심으로만 정의돼 있던 부분들을 K-컬처라고 할 때 우리가 의당 느낄 수 있는 외래관광이라든지 K-푸드, 패션까지 다 확장시켜서 제대로 다시 재정의한 거고요.

아까 보셨던 23년 대비 25년이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23년을 추계, 집계할 때 제가 보기에는 K-컬처가 아닌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누가 봐도 K-컬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다시 정의를 했더니 25년에 그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산업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뺀기 때문에 25년에 재정의된 것이 저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최취영 장관님, 문체부장관께서는 문체부의 수장이기도 하시지만 대한민국정부 대변인 역할도 하고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내용은 두 역할을 나눠서 문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청와대를 개방했습니다, 국민께. 2022년 5월 10일부로 국민 품에 돌려 드

린다라는 기조하에 전면 개방을 했고 2025년 7월 31일까지 약 3년 정도 되는데 852만 명의 국민들께서, 관광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여러 갑론을박이 있기는 했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개방 첫해부터 발생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4300억 원에 달한다라는 분석도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청와대가 다시 폐쇄되기는 했지만 국민 소통 강화 그리고 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근현대사적인 상징성, 한국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국민들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아마 그런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 다른 구상도 있으십니까? 실은 청와대에서 집무실과 대통령 내외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 당시 21그램이라는 자격이 안 되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지금, 관련해서 여러 분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요. 이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죄를 받아야 한다고 동의하는 바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문제를 두고 지난 대선에서도 청사 이전 등에 돈을 쓰는 건 진짜 아깝다, 수백억 수천억을 여기 날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대통령 취임 직후에 몇새 만인 6월 10일에 청와대 복귀를 공식 선언하시면서 복귀예비비 259억을 의결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확인해 보세요, 세부내역에 관해서.

그래서 2025년 8월 1일부로 사실은 문화유산청에 이어서 문체부가 관리하던 청와대 관광은 이제 끝이 나고 국민 관람을 중단하고 청와대는 전면 폐쇄됐는데요. 그리고 그해 25년 12월 29일에 대통령 집무실도 바로 청와대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가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배현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이겁니다. 집무실은 금세 몇 달 만에 이전을 했는데 유독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통령 내외 관저, 생활하는 관저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그램이라는 업체에 특혜 시비가 있었고 실제 그 법적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과 대통령조차도 과거에 아방궁이라고 굉장히 비난했던 한남동 관저를 지금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청와대로 빨리 복귀 못 하시지요? 일반 아파트, 대형 평수 아파트도 리모델링하면 한 석 달, 넉 달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체부가 관리를 잘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왜냐하면요 이 문제를 아마 언론에서 한두 군데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 관계자,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계자께서 관저의 벽체 균열, 기와 균열과 같은 시설 노후화 때문에 지금 이전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문체부 결산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유산청부터 문체부가 관리한 그 시간 동안 관저 기와와 기둥 등을 보수하는 데, 청와대 시설관리 등에 들어간 총예산이 115억이 넘습니다. 분명 관리를 해 왔다는 얘기인데 왜 1년이 넘도록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지금 아예 새로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건지 왜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못돌아가고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정부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단지 관광객이 관광하고 또 시설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보수와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으로서의 어떤 보안 차원에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이슈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배현진 위원 가장 중요한 보안사항이 요구되는 집무실도 몇 달 만에 다 개보수를 해서 지금 집무실 이전을 조속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장관님을 비롯한 많은 국무위원들이 함께 늘상 회의를 하고 있으시지요. 그런데 관저만 지금 1년 넘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시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아방궁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막상 한남동 관저 들어가 보니 이야기하셨던 히노끼탕, 드레스 룸 그리고 요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골프 즐기시고, 내외가 골프 즐기신다는 것 많이 알려졌는데요. 스크린골프 시설까지 사실은 굉장히 흡족하게 마음에 든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안 떠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 대변인으로서 한번 입장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대변인이 발표할 수 있는 것과 또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할 수 있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에게 질문하는 게 더 적절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면 문체부장관님으로서 한번 평가해 주세요. 청와대 관리가 그렇게 허술했던 것 같습니까? 이미 취임하실 때 대통령께서 관저와 집무실 이전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전까지 해 왔던 내용 보고를 분명히 받으셨을 텐데요. 거의 허물어질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유지관리 차원과 대통령께서 들어가서 거주하는 곳에서의 보안 등 필요한 사안들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 직접 지난 대선에서 청사 이런 데 돈 쓰는 것 진짜 아깝다고 하셨는데 일단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복귀 예산에 예비비 25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정부는 세종 집무실에 지금 3900억 원을 투입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대통령께서 왜 관저로 돌아가지 않는지. 이 부분을 장관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한에서 청와대를 문체부가 관리했던 기간 동안 유지·수리·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세부내역을 제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통령 내외께서 취임하시면서 관저에 사전 방문하신 적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대통령께서 지금 청와대 생활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공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체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최취영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한 관광객 목표가 6개월 만에 1000만 명 뺏기하여 발표하셨어요. 지난 2월 25일에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2029년까지 3000만 명 조기 달성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6개월 후인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1년을 당겨요. 그래서 불과 6개월 만에 3000만 달성 시기가 1년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보니까 한술 더 떠서 4000만 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방한 관광객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은희 위원 거짓말 아니세요? 지금 부풀리시는 것 아니세요? 그러면 2028년까지 4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2029년에 3000만을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28년으로 더 당겨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낙관적인, 긍정적인 예측을 드린 거고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 4000만은 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3000만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4000만을 향한 수용 태세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정책적 방향들을 담은 것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3000만 4000만 목표의 산술 근거 자료, 향후 10년간 월별·연차별 방한 수요예측 모델 결과 제출해 주십시오. 그냥 말로 그렇게 하시면 국민 호도하는 겁니다. 뺏기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 추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글로벌시장 유치 확대 예산 281억 원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집요하게 물었던 건데요. 처음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그랬다가 심의 과정에서 글로벌로 명칭이 바뀐 것 아시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 46억 5300만 원 대비해서 6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쟁 추경, 급하다고 6배나 늘린 예산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업무 파악 좀 제대로 하십시오. 뒤에 담당자, 자료 좀 주세요. 장관님께 자료 좀 주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됐는지 살펴보니깐요 관광공사에 270억 원 통째로 줬어요. 한국항공공사 6억 원 그리고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여행업협회에 5억 원을 던져 줬어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관광공사에 넘겨준 270억 집행실적 자료 확인해 보니까 집행률이요 결과적으로 보면 6.7%입니다. 본예산보다 6배 더 늘려 가지고, 전쟁 추경이고 관광이고 3000만 4000만 그러면서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해 놓고 집행률이 6.7%예요. 아까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크루즈 예산 없다고 그러시니까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놔두고 어디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조은희 위원 이것 보십시오. 8월 14일 기준 전체 270억 원 중에 46.8억 원으로 집행률 17.3%입니다. 그런데 17.3%를 그대로 다시 추적해서 들어가면 집행액의 61%인 28.7억 원이 해외 지사에 미리 결제한 겁니다, 가지급분으로.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고요 계좌이체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보면 270억 중에 18.1억 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집행 산출률은 6.7%입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관광객 유치, 뭐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마케팅 예산은요 선금금을 미리 지급합니다. 계약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고요. 마케팅이 계속 집행이 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을 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래서 지금 선금금 기준이 그렇고요. 계약은 이미 70%가 넘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래도 17%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세요.

제가 예결위 때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지원 확대, 이렇게 난데없는 100억 원 뭐냐고 물으니깐 중국발이 아니고 나중에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상품 개발로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이거야말로 사과를 하셨어요, 저한테 공식적으로 보내 준 자료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바뀌었는데 미처 수정하지 못했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정도로 사과까지 했으면 제대로 집행했어야지요. 집행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개발 100억 원, 이게 제가 지적하니까 ‘중국’에서 ‘글로벌’이라고 바꿨지요. 실제로 보면 중국 75억 원이에요, 일본 20억. 말만 글로벌이지 중국·일본에 몰빵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중국과 일본 여행사·항공사에 뿌린 돈이 얼마인지 본 의원실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제가 또 놀란 게 있어요. 한국여행업협회에 5억 원 던져 준 겁니다. 이것은 예결위 예산 항목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관광공사만 수행기관이었는데 알고 보니 문체부에서 먼저 협회에 전화해서 5억 원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상근부회장이 누군지 압니까?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

○조은희 위원 아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면 직원들을 속이는 겁니까? 문체부 기초 실 정책기획관 출신 전 국립한글박물관장 황준석 씨가 상근부회장이예요.

저한테 자료제출 하시는데요. 10년간 이 협회에 문체부 직원이 낙하산으로 갔을 때 준 예산, 안 갔을 때 준 예산 다 저한테 내 주십시오. 보면요 문체부 출신이 가니까 용돈 주듯이 준 것 아닙니까. 뭘니까 이게, 전쟁 추정이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최취영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께서 영화관 관련 압표 부정거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관님, 내일모레 8월 28일부터 압표 근절을 위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번 법 개정은 기존의 매크로를 이용한 압표 거래뿐만 아니라 공정한 티켓 구매 과정을 우회해서 티켓을 확보하는 부정구매라든지 또 상습적·영업적인 부정판매까지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이정문 위원 저 역시 전문적인 압표상을 근절하고 국민들이 공정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한 법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또 누구를 압표상으로 볼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법에서는 부정판매 핵심 요건으로 상습 또는 영업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정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부정판매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문체부가 입법에 고한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장관님,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압표를 되판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압표상이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부정구매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이정문 위원 매크로뿐만 아니라 다중 계정, 구매 수량 제한 우회 등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하는 행위까지 부정구매로 규율할 수 있게 된 만큼 이 부분이 실제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부정구매 단계에서부터 티켓 싹쓸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다중 계정, 명의도용, 구매 수량 제한 우회,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어떻게 적발하고 추적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티켓을 팔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의 방지대책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플랫폼이나 이런 데에다 전적으로 맡긴 거고 문체부 단계에서 이것을 더 확인한다든지 보완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플랫폼 자체에서 그것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옆에서 플랫폼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와 관련해서 철도사업법 역시 상습 또는 영업을 부정판매 요건으로 두고 있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코레일에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암표 거래가 624건 중에서 국토부가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상습성 및 영업성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법의 중요한 내용이 상습성 또 영업성을 입증할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애초에 명확하게 해 놔야 단속하고 나서 이 그물망을 또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의원실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이런 부분을 규정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해도 문체부 차원에서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지금 공연이나 스포츠에 암표상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가 찾아내서 단속할 거냐가 지금 핵심 과제인데 이 부분은 시행령에 저희도 반영을 시키려고 했지만 법제처와 협의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기보다는 일단은 신고기관의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내부 지침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등을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그 내부 지침이, 법 시행이 바로 내일모레부터 시행되는데 언제 마련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저희가 나타나는 현상들 보면서 보완을 계속 해 나갈 건데요. 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법 시행이 내일모레부터인데 당장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적발은 해 놓고 이것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애로를 겪을까 봐 그러니까 이 부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말씀처럼 암표상은 엄정하게 단속해서 처벌해야 될 거고요.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규정이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유승민 회장님.

오후에 또 이석하신다고 그러셔서 미리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바로 코앞이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종목단체 중에 일부 단체의 경우에 현재 회장도 없이 내부 분쟁에 골몰하고 있는 회원종목단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한주짓수협회라든지 대한하키협회 등이 여러 가지 협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회장이 제대로 취임 못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래서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좀 관여를 하라’ 이렇게 했더니 ‘협회 내부절차나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회장님, 협회 내부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렇게 무작정, 기한도 없이 그 단체 내부에서 종결되기만을 바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도 이런 회원종목단체의 내부 분쟁에 대해서도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아마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있지요, 이사회?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오늘 이사회를 통해서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안건 사항이 뭘니까, 특히 중요한 내용이?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특히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에 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제 회원종목단체 선거제도 규정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이정문 위원 예를 들어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종목단체에서 앞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체육회 정관에 맞춰서 다시 규율하는 것이지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어쨌든 그 부분 잘 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지만 제가 질의를 간단히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배현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그저께 예결위 현장에서 청와대 관계자, 아마 정무수석님으로 보이는데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공유할 수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연내에

보강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이전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에서 간사와 또 위원장대행까지 했던 입장에서 관련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던 1인이었고 또 청와대는 기존에 수십 년 동안 대통령집무실과 관저를 한 공간에 두고 북악산과 주요 지형까지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경호, 군사, 방호 그리고 방공, 지휘통신, 비상대응까지도 염두했던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남동 관저를 유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다만 공개를 했더라는 사실 때문에 보안되어야 할 경호나 방호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지요.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도 청와대에서 아마 이미 밝힌 듯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 등 외부 위협에 대한 전체적인 방호 수준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그곳에 관저와 또 집무시설을 함께했던 전체적인, 군사적인 의미 그리고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수십 년간 쌓여 온 그런 전략들이 모두 있었다는 점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공유드립니다.

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법정 기한이 5월 31일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K-콘텐츠 AI 혁신 선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종료일이 올해 6월 30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결산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성과 달성 여부라든지 최종 집행 실적, 정산 결과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이 회계연도 독립원칙 쓰고 이월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이유는 그 예산 그 해에 어떻게 쓰였는지 국회가 알기 위해서거든요. 물론 이게 추경이 확정된 뒤에 공모와 협약 시간이 걸리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 기간을 최소한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전후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 부분은 저도 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그래서 비록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보고서 법정기한 5월 31일을 넘겼지만 최종 집행 실적, 성과 평가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추경사업 편성할 때도 사업기한이 다음 연도 5월 31일을 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만화산업 육성이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안에 만화뿐만 아니라 영상,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4개가 묶여 있어요. 담당 부서도 3개 과로 나뉘어져 있고 산업 특성도 다르고 정책 수단도 다르고. 이런 다른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놓다 보니까 생기는, 우리가 짐작되는 문제들이 있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부사업 안에서 예산을 옮겨 버리면서 국회 의결이 필요한 이용도 아니고 또 재정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전용도 아닌 채로 내

역 변경만 하면 되는 일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는 만화에 얼마, 캐릭터에 얼마 이렇게 심의해서 의결한 예산이 국회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장르로 넘어가는 거지요.

같은 일이 체육 쪽에서도 또 확인이 됩니다.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쳤다고 얘기하겠지만 원주 스포츠가치센터 건설보상비 가운데 5억 1600만 원이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바뀌었어요. 재정 당국과 협의는 거쳤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국회가 시설 짓는 데 쓰라고 의결한 돈이 다른 데 쓰이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용을 좀 달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의 편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편의의 한계가 바로 국회 심의를 우회하는 통로를 갖지 말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하면서는 최소한 제가 지금 방금 언급했던 내용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화산업 육성과 캐릭터산업 육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편성되는 예산들이 있다면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세부사업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알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고맙습니다.

○조은희 위원 자료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예,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지난 10년간 이 여행업협회에 문체부, 관광공사가 지원한 연도별 세부내역을 주시고 해당 협회에 문체부 출신 임직원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추경 예산 5억 원을 협회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구체적 세부내역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또 여기 상근부회장이 문체부 기조실 정책기획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김대현 2차관도 문체부 종무실장 퇴진하신 후에 한국카지노관광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일하시다가 다시 오셨는데요. 그다음에 문체부 기조실장을 지낸 김영산 실장도 카지노협회 상근부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 때 여러 가지, 법카 활동비 이런 내역을 제대로 내놓지 않아서 고발할 예정인 김정배 전 문체부2차관도 문체부차관으로 있다가 축구협회에 갔고 지금은 한국관광펜션업협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문체부 산하 협회들에 문체부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내려가서 회전문 인사 출구로 전락하고 대외 로비 창구로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지금 5억 원을 쫓아 주듯이 국민 세금 빼먹는 카르텔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임직원이 산하 협회에 간 전체 자료를 받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정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이지만 다만 위원님들도, 지금 위원님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료의 범위를 줄여서 제안을 해 주신다든지 또는 시

일이 걸리는 자료 등 그런 부분들은 이번 결산 심의 과정 이후까지 예정해서라도 그런 자료 제출을 위한 소통 역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속편하듯이 예전에 늘 쓰셨던 법에는 맞지 않는 자료 제출 거부 사유가 아닌 내용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만약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또는 입증 취지, 그러니까 점검하시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자료를 우선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양해를 구한다든지, 의원실에서도 그런 방식의 소통에 좀 나서 주시고, 그래서 자료 제출이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계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이재정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유승민 회장이 점심시간 이후에 회의 참석을 못 한다고 해서 위원장님께 대신 물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축구협회나 아니면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일부, 수는 대폭 확장을 했지만 여전히 선별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사실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도 회원 수가 18만이 됩니다. 그러면 그 18만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투표 이게 가장 확실한 정당성을 갖는, 리더십을 세우는 데 의미하다. 그리고 그 과정이 중앙선관위 같은 선관위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장관님 계실 때는 분명히 질의했는데 이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다른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회장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기존의 선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지, 그 방안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일 건지, 저는 산하 종목단체도 가입단체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의 회장선출 제도를 가져 가야 한다. 그게 진정한 모두의 직선제가 되고 모두의 정당성을 갖는 거버넌스 리더십을 만들어 내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유승민 회장에게 대신 좀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이게 의사진행발언의 구조에 맞지 않는 부탁이서 가지고…… 사실은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 전에, 사전에 고지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회장도 이석이 예정 중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점검되고 할 수 있는 말씀 위주로 간단히 짧게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직선제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투표권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 등록인부에 보면 유소년선수들도 있고요, 중복 등록된 동호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심도 있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거고요.

그러나 저희는 점진적으로 계속 더 늘려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지켜봐 주시면 따로 제가 의원실에 그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본회의 산회 직후로 속개하도록 하

겠고요, 시간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정문 예, 말씀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PPT를 잠깐 띄우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축구협회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축구협회는 과거에 국제심판을 대상으로 성 접대까지 했다는 사안이 불거져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켜 온 그런 조직이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축구협회는 클린카드를 도입한 2013년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검증을 해야 하고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건별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몇 가지 사용내역을 뭉뚱그려서 제출했어요. 저것 가지고 뭘 검증하라는 건지……

이건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해 주시고 조속히 자료를 건별로 나눠서 내라고 요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까 내역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가 동의만 하면 해당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가 엇그제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건 축구협회가 검증을 회피하고 거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으로 보이거든요.

청문회 이후에도 대한축구협회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원장님께 해당 자료의 정확한 제출을 요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문 지금 노종면 위원님께서 대한축구협회 관련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뭉뚱그리지 말고 항목별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유산청장님, 오늘 업무보고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인사말씀도 들었고.

근대유산을 보존하고 또 그것을 우리 미래유산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일부 들어 있던데 과연 유산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으로 갖고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청장님은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실현해 낼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보통 근현대유산 그러면 유산청에서는 50년 이상 된 걸 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년 미만이라도 현재까지 온 모든 유산 가운데서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예비 근대유산이라고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정된 것이 관광콘텐츠로, 그래서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에게도 향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런 유산들의 보존과 함께 주변이 살아나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하고 지역도 같이 살아나는 그런 일을 조사하고 계속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노종면 위원** 지금 우선적으로 여기 이리이러한 지역에 이리이러한 근대·현대 유산들은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검토해 놓으신 바가 있나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우리 근현대유산이 있지만 위원님이 계시는 곳의 캠프마켓이나 이런 곳들도—과거의 일제시대부터 미군기지까지 하는—그 안에 많은 건물들이, 좋은 것이 유지돼 있고 또 그 안에 무형이라든가 아니면 LP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조사하고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그 지역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문체부2차관님께 좀 여쭙볼게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 장관님이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서.

지금 리틀야구 월드시리즈가 진행 중이지요, 미국에서?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한국팀이 지역대회에서 우승해서 아시아퍼시픽을 대표해서 지금 출전하고 있어요. 그 자체를 지금 모르고 계시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노종면 위원** 지금 2승 이후에 1패를 당해서 8강 문턱에서 패자부활전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자부활전을 통과하면 8강, 4강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7년 만에 진출한 거예요, 월드시리즈에.

지금 한국을 대표해서 아시아퍼시픽 대표가 된 팀이 인천 연합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리틀야구에 대해서 좀 여쭙보고 싶은데 최근에 2승을 하고 1패를 당했어요. 저희에게 1패를 안긴 팀이 퀴라소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대표팀입니다. 그 퀴라소는 며칠 전에는 일본팀을 6 대 0으로 노히트 노런으로 제압했어요. 우리나라는 1 대 0으로 석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퀴라소가 아시다시피 인구 16만입니다. 면적이 인천시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인천 부평구와 인근 계양구를 합친 정도의 면적이 퀴라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퀴라소가 어떻게 한국과 일본을 다 제압할 수 있었을까?

제가 구글 어스를 들여다보니까요, 제가 좀 과장을 하면 한 집 걸러 하나씩 야구장이 있어요. 작은 도시국가에 저희가 구글 어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야구장만도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면적에 인구는 몇 배가 더 많은, 부평구와 계양구의 인구만 합

처도 100만에 가깝거든요. 야구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동호인들 그리고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야구장이 불과 4개예요.

아까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장관님이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이용자에 비해서 면적이 크게 요구되는 체육시설물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심만큼 야구장에 대한 관심, 인기 스포츠 중에서 아마 구장 수가 가장 적을 겁니다. 새로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프로스포츠 인기가 많아도 스포츠를 그냥 보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문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기 위원 허민 유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도 이미지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대상이 부여·공주·익산·경주 등이 해당됩니다. 마는 이런 고도들은 국가유산들이 많기 때문에, 유산도 잘 보존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각종 규제가 많아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재산상에도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문화환경을 잘 보존·육성도 하고 주민들의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도 절반 정도 줄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50억에서 25억으로.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 고도 말고 신라왕경이나 백제왕경 같은 특별법에 의한 것은 좀 별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고도 이미지 사업 같은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고요.

내용적으로 봐 가지고, 고도 이미지 사업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또 그 몇 개 사업들이 지금 서로 나뉘져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경주의 경우는 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서 지금 요청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의 경우에,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100% 다 집행을 했거든요, 2025년도의 경우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모자라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금년보다도 내년에 또 절반으로 예산이 줄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 고도도시 중에서 수요가 많아서 사업 집행이 100% 딱 이렇게 된 데도 있고 또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된 지역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청장님이 내용을 아실 거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성과가 이렇게 확인된 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잘 배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조사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신라왕경 복원·정비에 관한 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금년 4월 달에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계획이 굉장히 잘 수립된 것 같습니다, 1차보다

도.

이번에는 핵심 유적별로 세부 이행과제, 연차별 로드맵 또 재원 투입비까지 구체적으로 잘돼 있는데, 이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청장님한테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고 합시다마는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발굴-고정-설계-복원 쪽 이어지는 전체 일정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굉장히 어렵게 통과됐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석기 위원 18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PEC 때도 그렇지만 APEC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경주를 찾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가 신라 천년고도였다는데 왕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물어요, 왕궁. 왕궁 없잖아요. 이 복원 계획에 왕궁이 들어 있는데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찾아온 사람들이 천년고도의 왕궁을 묻는 건 당연한데 이런 식으로 가면 몇십 년이 지나도 왕궁을 복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2차 계획을 잘 수립했으니까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1차·2차 나눠졌을 때 1차는 주로 발굴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다면 이번 2차는 발굴 중심지 위예다가 복원도 하고 이미지도 찾고 하는 일을 합니다.

다만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발굴을 너무 넓은 지역을 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지역민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고 위원님도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APEC 때도 저희들이 좀 정리해 갔지 않습니까? 아무튼 2차 때는 빨리 속도를 내서 지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좀 가시적으로 착착 보이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문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올해 흥행작인 ‘오디세이’는 특별관의 암표가 남발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실을 담은 영화 ‘귀향: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가 내일 개봉합니다. 그런데 전국 멀티플렉스 3사 411곳 영화관을 제가 봤더니 우리 영화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곳은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GV가 6곳밖에 열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롯데시네마는 23곳 극장을 열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더 웃긴 것은 극장 하루에 1회 상영을 하는데 이게 조조하고 심야, 그러니까 아침 9시나 밤 11시 정도

이렇게 해서 상영을 해 준다고 해요.

이렇게 잊혀져 가는 역사의 아픈 기억들을, 피해자들의 이런 억울함을 목소리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국민에게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러한 소중한 영화가 이렇게 극장가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그래서 CGV를 비롯한 극장가의 독립영화 스크린 편성에 문체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진위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건지, 이거는 장관님이 직접 나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상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성 있는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빨리 가시적인 조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작년에 민간에 대한 카지노 사업권 인허가 특허 우려와 카지노 수익의 공적 활용도를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임오경 위원 그 후에 문체부가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카지노의 관광기금 부담률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연구 허가를 5년 갱신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지금 관광기금이 부족해서 올해 추경에서 어떤 사안이 생겼습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우리가 주식·펀드 해지까지 해 가면서 영발기금에다 뒀고 문예기금에다 주고 관광기금에다 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관광기금이 필요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이거를 진행을 안 하지요?

저희가 공항 출국세 인상이 지금 7000원에 멈춰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작년부터. 다른 나라 갈 때마다 저는 3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씩 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7000원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상향을 해야지만, 인상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임오경 위원 대통령께서 이렇게 민간 카지노 수익의 공적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신 것은 저는 현행 사업자의 부담금을 더 부과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대통령의……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중국대사관에 방문해서 대사관을 만났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언론에 나왔어요. 중국 법은 도박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 국민이 해외에서 도박에 참여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한국 카지노가 중국인 등을 대상으

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것은 우리가 18개의 카지노가 있다라고 하면 특수하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법에 의거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여기는 징수할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강원랜드도 해당 법에 의거해서, 지원법에 의거해서 징수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이걸 아홉 군데만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차별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징수를 하더라도, 증액을 하더라도 해야지. 이거는 제주도 특별법에 의거해서, 그리고 여기는 폐광 지원법에 의거해서 다 배제시키고 18개의 카지노가 민간에 있는데…… 아니, 17개가 있고 강원랜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9개만 징수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매출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전체가 다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분담률 10%가 95년 이후 지금까지……

○임오경 위원 매출을 보는 게 아니라 제주도하고 강원랜드는 징수를 현재 그쪽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없어서 배제를 시켜야 된단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아홉 군데만 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관광진흥법을 먼저 손들면 다음에 그다음에는 제주도도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어디가 우선인지를 한번 보셔서, 저는 지금 출국세를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출국세는 빠르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법안이 지금 상임위에 상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꼭 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문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장관님,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정규직제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동안에 별도 추진단장도 없이 그 담당 과장님이 겸임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도 3년 동안 구성하고 운영이 잘 안 됐는데 금번 개편으로 좀 멈춰 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기왕에 조금 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현안 수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규직제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고맙습니다.

○정준호 위원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오세훈 시장이 ‘용산공원에 1cm라도 내준다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에 세운4구역은 왜 개발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유네스코가 세운4구역 재개발 승인 전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무시를 한 겁니다. 내용은 잘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10개월 동안 진행된 사항이고요. 사실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 지역하고 일반 지역은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요. 유네스코가 등재시킬 때 했던 권고라든가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인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해 버립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항구 주변에 축구장과 주거시설 건설로 인해서 재개발로 도시 경관이 좀 많이 바뀌면서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을 당한 예가 있습니다.

청장님,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와 종로구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이후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맞으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3월 시행령 발표 이후에 5월 6일 날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계획을 진행할 것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1년간 세 차례나 공식 서안으로 요청을 했고 국가유산청은 모두 서울시에 전달을 했는데도 서울시가 무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사실 그간에 오세훈 시장님과 네 차례의 만남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할 건 권고하고 이야기를 꼭 하고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하라고 열어 놔는데 사실 지금까지 좀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공식 서안을 보니까 세 번째 서안에서는, 특히 세계유산영향평가 미이행 시에 세계유산 보존 의제 상정 가능하다고 이렇게 유네스코에서 통보를 했었는데, 이 의미가 사실상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종묘가 리버풀처럼 등재 취소의 위기에 지금 처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 이번 7월에 했던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이 그 주최국으로서 상당히 많은 활동 끝에 이 종묘 건은 그래도 굉장하...

○**정준호 위원** 어려움이 있으셨고, 관련된 회의에서 주최국이기 때문에 좀 넘어간 측면이 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준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31조 3항을 보니까요,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시행령 3조 3항에서는 조치명령의 형식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뿐 필요한 조치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청이 서울시에게 여러 가지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명령을 받은 서울시는 자의적으로 명령의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을 것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장관님께 제가 좀 여쭙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법 188조를 언급하면서 시정명령 요청 권한이 주무부처 장관 그러니까 국토부장관한테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유산청장 명의로 취소 요청이 왔으니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유산청 요청을 거절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유산청장 명의로 왔으니까 자기네들은 요건이 구비가 안 됐으니까 안 들어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지금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앞으로 문체부 계획이랑 대응 방안 같은 것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의원실에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장관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볼게요.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게 역사의 죄인일까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던 도심 부지에다가 시민의 집을 짓는 것이 역사의 죄인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개발과 보존은 균형을 이루어야겠지만 보존은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유산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런 정당한 절차들이 다 지켜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법 188조에서 주무부처 장관께서 이렇게 시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산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서울시에 미리 6월 27일에 변경 인가를 취소해라…… 사실은 이게 6월 19일 날 전 종로구청장께서 셀프로 해 가지고 변경 인가를 내버린 거였거든요. 그동안 10개월 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종로구청장이 변경 인가 허가를 내버렸습니다, 셀프로.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몇 번, 수회 이야기를 했고 정식으로 공문도 저희들이 보내서 국가유산청에서 서울시가 종로구청에게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주무장관께서 다시 공문을 보내는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문**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님, 콘진원 결산 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집행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혁신 부문장이 2025년도 예산에 인건비조차도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자 인건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의 남은 예산을 끌어왔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원 건물관리비에서 5700만 원 여유 재원 만들고 직장 어린이집 운영 예산에서 발생한 불용액 7500만 원까지 가져와서 총 1억 2600만 원의 부문장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원장님, 직원들 보육과 복지를 위해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문장 직위 인건비로 돌려써도 되는 겁니까? 이것 안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문제는 이사회 의결도, 문체부 정식 승인도 없었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해당 부문장 직위는 올해 폐지됐지요? 제대로 된 인건비 재원조차 마련하지 못한,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예산까지 끌어다 쓴 것 정상적인 기관 운영입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윤지**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기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 PPT 보시면 이게 단순한 회계 실수로 보기가 어려운 게 최근 5년간 콘진원 자체 사업 예산 변경 43건 모두 문체부 승인 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필요하면 예산 옮겨 쓰고 나중에 맞추는 그런 관행을 조직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다음 PPT 또 보시지요.

지난 6월 12일 날 취임하셨지요? 취임 뒤에 주말 제외하면 불과 이틀 만인 6월 17일부터 서울 출장 시작했고 이후에도 출장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취임하신 이틀 만에 업무 파악 다 하시고 2주간 출장을 다니신 건데요. 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 책이 한 손으로 들기도 어려워요. 500페이지에 달하거든요.

취임 초기에는 국내·해외 일정 이런 것, 출장 일정 늘리는 것보다 예산 집행, 내부 통제 그다음에 임직원 조직 기강 세우셔야 되겠지요. 여기다가 우선순위를 두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콘진원은 어린이집 예산까지 다른 직위 인건비로 돌려쓰고 예산 변경 승인 없이 반복해서 온 조직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윤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문예기금 총 수입은 약 5293억 원인데요. 그런데 자체 수입은 827억 원, 전체의 15.6%에 불과합니다. 상당 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반면에 문화예술 지원 수요와 기금 지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기관장으로서, 책임자로서 현재 문예기금의 재정 구조가 안정적인지 이렇게 보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이범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도 외부 기금에 의존을 하고 있고 체육기금 등에서 의존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자체 자금 현장에 있고요. 또 문예진흥기금이 계속 고갈되는 현실에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님, 문예기금이 꼭 부담해야 할 사업과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할 사업부터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도 한스타일 육성 지원, 문화예술 해외 교류, 공예문화산업 육성 등 5개 세부 사업을 27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이관을 할 예정인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PPT 보시면 먼저 현장예술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예위가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수행을 합니다. 이것도 문예기금이 계속 부담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 운영비입니다. 용자 사업 자체는 문예기금 성격에 맞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용자 사업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운영비 제외하고서라도 사무실 임차료, 콜센터 용역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무실 이런 것들, 실제로는 기금과 일반회계를 합쳐서 총액으로 집행되는 건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PPT 보시면 2025년 사무공간 임차료와 관리비는 1억 348만 원 한 곳으로, 에이알에이코리아 일반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여기로 집행을 됐지요. 25년에서 2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고객상담센터 위탁운영비 계약 금액은 4억 7268만 원으로 1년 기준에 2억 3600여만 원인데 콜센터 예산액 8400만 원으로 문예기금에서 해당 예산액과 일반회계의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예산을 합해서 콜센터 운영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예산 운용 및 관리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장관님, 문예기금 재정건전성 강화하려면 새로운 재원 확보하는 것과 함께 기금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출부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예술인인력육성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을 하고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 운영비 일부도 역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해 주시고요. 아울러 문예기금 전체 사업 지금 기금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금을 보다 안정화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출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문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님과 최취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조은희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을 통해서 집행되기 시작한 글로벌 시장 유치 마케팅 사업 집행률이 부진하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해외 마케팅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해외 마케팅 사업은 통상적으로 계약금, 아까 선금금이라고 표현했는데 계약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사업 완료 이후에 지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보통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선금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그 사업이 온전하게 지금 실행되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이상 없이 집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집행률도 100% 다 완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전체 예산의 75%가 지금 계약이 돼서……

○조계원 위원 75%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요. 나머지도 연말까지 100% 다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님, 추경 교부 후에 집행 로드맵 다 세웠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세우는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예, 저희가 예산을 교부받은 게 6월인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계획이, 로드맵이 잘 갖춰져 있어서요 100%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 100% 집행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문체부와 관광공사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현장 마케팅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장관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야말로 최근 3년 치 집행률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23년에는 95.4%, 2024년에는 89%, 2025년에는 70.6%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여다봤더니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중견기업이 2024년까지는 참여 대상에 포함이 됐었는데 2025년과 2026년 본예산에서는 제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도 떨어지고 부랴부랴 다시 추경에서 중견기업 1만 명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목표를 잡았지만 또 실제 신청 인원은 절반도 안 되지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따져봤더니 이게 또 중견기업에만 책정된 부담금 기준이 높은 거예요.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 이렇게 5 대 5로 부담하는데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무려 15만 원, 정부에서는 5만 원만 지원해요. 그러면 기업에서 그거를 지원하려고 하겠습니까? 선뜻 지원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집행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중견기업의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면 더 많이 소비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중견기업에 인색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이 제도는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 경제를 일으키는 것과 또 하나는 휴가가 어려운 분들을 좀 지원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곳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우선적으로 제도가 설계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왕에 책정된 예산이면 충분히 이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중견기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업 부담금 기준도 통일시켜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도 운영을 했으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역의 경제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사랑 휴가지원 이것도 보면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7 대 3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도 돈이 없는 지자체는 신청도 못 하는 진입 장벽을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설계를 합니까? 소멸위기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취지는 그런데 실제로는 소멸위기 지역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 지자체 현실에 맞게 국비 지원 비율을 좀 상향하는 등 재정 문턱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이 제도는 이번에 시행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 국고보조의 비율도 더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특히 돈 없는 지자체들, 인구 소멸이 더 심각하게 진행되는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줘야 되는데 현재 매칭 구조로는 오히려 힘들어하고 사업 부담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문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7분 주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정문 7분이요?

○진선미 위원 오전에 안 해서.

○위원장대리 이정문 하시고요, 제가 이따 필요하면 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 주시지요.

○진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축구협회 청문회 할 때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거의 청문회 당일 날 늦게 와 가지고 그걸 못 보고 있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얘기가, 성접대한 이 비위가요 실제로 일어난 시기는 2011년, 2012년 이때이지만 그게 문체부의 감사를 받은 건 2015년, 16년 이때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 뭐가라도 받았더라면 축구협회가 지금 이 상황에 안 와 있지 않을까.

오래된 거라서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상황을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문체부 감사가 이렇게 무시되고 그리고 수사 의뢰라는 것을 해서 수사가 됐으면,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버젓이 카드로 성접대를 한 거예요, 안마시술소에 가서 심판들한테. 그것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자술서가. 심지어 두 분이, 두 사람이 다 그것을 인정하고 지도부에 상의해서 하라고 해서, 먼저 심판들이 요구해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술서까지.

그런데 이게 시기를 의도적으로 놓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수사 의뢰 시기도 늦어졌고

경찰에서도 그것을 3개월 동안 방치했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시점에 조윤선 장관이 아마 블랙리스트 이런 걸로 해서 구속된 시기여 가지고 장관이 없이 진행이 된 몇 달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실무자가,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제대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감사보고서에도 축소해서 살짝 언급만 해 가지고 놓쳐졌고 수사 의뢰도 제때 안 해 가지고 결국 경찰이 3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접수도 안 해서요 결국은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조차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건들 관련해서도 무혐의처분까지 내리는 상황이었어서, 문제는 2018년에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징계조차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축구협회에서는 이미 팩트가 다 있고, 그러니까 쓴 영수증이 다 있고 그리고 그것에 가담한 진술서가 있는데도 이 7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인사회에서 수사가 안 되더라도 문제가 된 건 당연히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징계 없음 결정하고 업무 복귀시켜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축구협회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우리는 뭐 해도 축구협회에서 그냥 다 무시하고 문체부에서 감사 결과 한 것도 다 무시하고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징계 처분 항소 계속 다투고. 이런 게 아주 나쁜 선례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 상황들을요 문체부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왜 수사 의뢰가 그렇게 늦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수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을 체크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장관님께서 보고를 제대로 받아 보시고 그래야 이 부분들이 좀 정돈이 되지 않을까.

이걸로 사실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났으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심판들이 다 요청했다는 건데 거기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난 것 기정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큰일이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시에 명확하게 처리를 했어야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이런 사태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아무리 지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챙겨 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감사원에서도 확인해 보겠다고 예결위인지 법사위인지 어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원장님이. 하여튼 그 부분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리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키오스크로 주문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23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위원장대리 이정문 추가질의 안 하실 거지요?

○진선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정문 그러면 2분만 더.

○진선미 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키오스크라는 것을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내려서 만들어라 이런 게 2026년 1월에 전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쨌든 고궁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인주문기든 주차비 이런 거든 여러 가지로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문체부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교체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전면 시행이면 민간 영역에도, 일반 영화관이든 그런 데도 다 권유를 해서 이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문체부 산하의 공적인 기관에서, 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렇게 돼 있지만 교체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솔직히 잘 안 믿어지거든요. 전 수조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제대로 빠르게 교체를 해야지, 문체부 산하에 민간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걸 쓰는 곳이. 그러면 그쪽에도 권유를, 권고를 해야 될 텐데 그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국가유산청에 교체가 18대밖에 안 돼 있고 실제로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체크해 가지고 빠르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법으로 의무화됐다고 하더라도 뜻과 의지가 강해야 우선 순위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도 관심 갖고 좀 밀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챙겨서 공공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국가유산청에서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가유산청은 사실은 4대 고궁과 그다음에 종묘는 지금 키오스크에 배리어프리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유인으로 하는 데 티켓팅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중복돼 있는데 그 라인을 잘 못 정한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더욱더 잘 설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문 다음은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 자료제출 요구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문 예, 해 주시지요.

○최민희 위원 저희가 지난 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쿠팡플레이에 대하여 최근 5년간 대한축구협회 공식 스폰서 후원 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공식 스폰서 기업 11곳에 대해서 같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쿠팡플레이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니다. 사유는 계약서상 비밀조항 의무로 인해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나머지 제출한 곳이 다 글로벌 대기업들입니다. 나이키, 코카콜라 동일한 이유인데 제출했거든요. 대한민국 국회 증감법을 지켜 줬는데요. 쿠팡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쿠팡 측의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대한축구협회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스폰서 기업들을 압박했다는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쿠팡이 이런 대한축구협회와의 사전 조율에 의

해서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쿠팡플레이 최근 5년간 대한축구협회 공식 스폰서 후원 계약서 제출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스폰서를 했던 기업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압박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문 청문회는 끝났지만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최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행정실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저는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 계속 추적해 왔기 때문에 성접대 관련한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 일단 장관님, 대한축구협회 업무에 성접대가 포함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민희 위원 안 되지요. 이것 주의에서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축구협회 성접대를 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안 됩니다.

○최민희 위원 안 되지요.

일단 PPT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1년부터 2012년까지 이런저런 경기가 열렸는데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문체부 감사요.

다음이요.

그런데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냅니다. 보도자료 내용에 이런저런 비리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이미 성접대를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성접대 사실이 빠집니다. 이것은 2016년이에요. 빠지고 안마시술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시술소가 왜 들어갔냐, 사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어봤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문체부에서는 첨부한 보도자료에 성접대 내용이 빠진 이유가 최종 결과 확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당시 수사 의뢰를 한 사항이라 보도자료에 적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까 진선미 위원이 말씀하신 이게 수사가 늦어지고 그러다가 공소시효가 지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데 저는 문체부가 협조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에요.

그러면 문체부가 발표한 저 보도자료는 왜 문제인가. 뒤에 보세요. 넘겨 주세요. 외국인 심판 성접대 관련 진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2차 성접대까지 했다 그리고 외국인 심판들이 안마시술소 접대를 받고 싶어 했다 이렇게 쪽 얘기했어요. 핵심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께 보고를 하고 접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 읽어 보셨어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봤습니다.

○최민희 위원 읽어 보셨지요?

넘겨 주세요.

이것 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 경기 때도 안마시술소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 봅시다. 무혐의 의견이에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업무에 들어가나 라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불기소했대요. 희한한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문체부, 서울지방경찰청 다 짜고 봐줬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다음 자료 봅시다.

검찰 무혐의처분 증빙자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전원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까 노종면 위원께서 이게 과거의 일이지만 이런 정도의 행위를 했던 축구협회에 대하여 축구협회 임원들 그리고 축구협회 내부에서 쓰는 소위 카드 이것 다 뒤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저때만 있었고 없었을까,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때만 딱 성집대가 있고 그 이후에는 없었을까요? 저렇게 다 무혐의해 주고 봐주는데 문체부도 봐주고 경찰도 봐주고 검찰도 봐주는데 없었을까요?

이게 JTBC가 단독 하면서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과 일본에서도 스스로 축구협회가 자체 조사를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무혐의 처분한 게 거기서 문제 되겠습니까? 국제 망신한 거예요.

저희가 대한축구협회 관련하여 모든 카드 다 살살이 되지겠습니까. 국감 때 협조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투명하게 국민의 의혹을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위원장님, 저희가 남북 교류 과정에서 북한의 그림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 그림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이범현 아주 오랜 전에 남북회담 때……

○최민희 위원 아니, 그 그림 어디 있냐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이범현 민화협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한국에 있습니까, 북한으로 넘어갔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이범현 한국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최한 곳이 민화협이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하여 제가 추가 질문할 테니 준비하십시오.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이범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문 그러면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울의 김승수입니다.

장관님, 용산공원 알고 계시지요? 용산공원이 언제 조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노무현 정부 때—2007년 7월입니다—그때 만들어졌고 법 4조 2항을 보면 국가는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장기간 외국군이 주둔한 용산부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주 숙원사업으로 이 법을 추진한 겁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도 용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센트럴파크에 견줄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정문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2016년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용산공원 만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한 70% 가까운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막무가내로 주택 공급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문체부에서 20년 전부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해 왔고 지금 용산공원 부지에다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체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전에 한번 협의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이번에 협의된 바는 없고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지금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수 위원 왜 보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동안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용역까지 다 진행되고 있는 것들, 보류했던 것들 자체가 뒤에, 지하에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반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복합문화공간 조성할 때는 여러 가지 지하의 유해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하면서 주택은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이게 완전히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정준호 위원님도 종묘 앞의 세운상가 재개발하면 자연경관 해친다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쪽에 또 저촉된다고 반대의견을 말씀하시고 민주당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가상의 그림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박물관에 가 보면 여기가 포토존이라고 할 수 있는, 뒤에 경관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경관이 저렇게 완전히 훼손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운상가 쪽에는 자연경관 훼손된다고 결사반대를 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김승수 위원 문체부 관련된 예산도 대부분 이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고보조 지원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국가균형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지역별로 어느 정도 보조

금이 균형 있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문체부 보조예산 지원액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니까 지역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겁니다. 물론 지역별로 주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난다 하더라도 전남 광주의 경우에는 25년, 26년을 비교해 보면 무려 70%나 증액됐고 전북도 100% 가까이, 9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률만 큰 것이 아니고 단순 액수에 있어서도 전남 광주의 경우는 한 290억 그런데 경북은 55억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26년 예산은 18억으로 66%나 삭감됐습니다. 경남도 25년 43억에서 26년 35억으로 18%나 삭감됐습니다. 전남 광주 예산은 아시아 아특회계 예산 한 1400억 정도가 빠진 예산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렇게 보조예산만 차이가 날 뿐만 아니고 박물관 같은 문화·예술시설에 있어서도 보시면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는 겁니다. 광주박물관의 도자문화관, 또 국립나주 복합문화관에 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0억 가까이씩 작년에 지원됐습니다마는 대구 복합문화관에 2억 7000…… 이게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추가질의 안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그렇게 운영하셨던 거지요?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하겠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문체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서울예술단은 광주로, 국립오페라단은 대구로 이전하겠다고. 거의 확정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조금 주춤하다가 갑자기 또 서울예술단은 광주로 이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립오페라단 대구 이전은 아주 잠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추진했으면 같이 다시 재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아까 지역별로 사업의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 사업의 특성·목적에 따라서 공모 등을 통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도 어느 정도 지역마다 큰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1년 사이에 증감률이 너무 극과 극을 달렸다는 거지요.

사실 내가 다른 자리에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민생지원예산 한다면 추경을 하면서도 보면, 그때도 보면 문체부 예산 중에 일부 지역사업들이 끼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행을 보니까 특정 지역 사업들이 끼어 들어갔는데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형평성이 맞구나 이런 정도의 균형 감각은 갖춰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추진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안배도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예술단도 공공기관 이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앞서 두 개의, 그러니까 서울예술단과 국립오페라단은 좀 선도적으로 추진해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서울예술단은 내려가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현재 시점에서 국립오페라단 대구 이전도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국립예술단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윤용근입니다.

최취영 장관님,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기능은 명확한 차이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윤용근 위원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저작권 분쟁 조정, 감정, 정책 등을 담당하고요, 보호원의 주요 기능은 저작권 침해 예방 등 저작권 보호활동에 집중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와 저작권 정책 집행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합의 중인 사항이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내부적 협의 단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윤용근 위원 그렇다면 계속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작권 분쟁 조정과 저작권 보호활동은 ‘저작권’이라는 세 글자가 같은 것 이외에 전혀 다른 기능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 제가 본 바로는 문체부가 효율성을 앞세워서 조직개편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당초에 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한 이유는 애초에 위원회와 보호원 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를 시킨 것인데 만약에 권리자·이용자와 같은 실제 수요자들의 니즈는 무시한 채 두 기관이 통합되어 정책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거야말로 비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문체부도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AI 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인공지능은 기존 데이터를 한번 소비하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작품과 콘텐츠는 계속 창작되어야 새로운 학습 데이터도 계속 생성됩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창작자 보호 및 인공지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니라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산업 인프라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윤용근 위원 그런데 AI 기업이라는 공통에게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보호원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더 튼튼해져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통합으로 간다면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혹시 이 부분 논의하실 때 두 기관의 통합 혹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들이어서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창작자 입장에서 AI 학습 데이터 생성과 권리 보호 방안 그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저작권보호원의 기능과 저작권위원회 양 기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그 내용을 본 의원실로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질의 전에 위원장님,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체부가 글로벌 시장 유치 확대 예산 281억 원 중에 계약 75%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관련 계약서, 공문, 계약금 지급 일시·금액, 잔금 지급 예정일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예산 50억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랑 계약이 된 것인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된 게 없다면 50억이 액수만 해도 전체의 17%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항목 거의 모두가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말인데 앞서 언급한 자료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정 일단 방금 처음 말씀하신 거지요, 이 내용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 이재정 한번 내용들 점검해 보시고 각각의 사정들 일단 설명해 주시면서 소통 일단 시작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아까 조계원 위원 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최휘영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PPT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체부가 지난 2차 추경으로 20억 원을 편성해 교부한 국제컨퍼런스 연계 글로벌콘서트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입니다. 결과보고서가 딱 3장입니다. 첫장에는 ‘콘서트로 전 세

게 관객을 하나로 연결했다. 글로벌 음악 프로젝트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관객 1만 명 대비 실제 관객은 5분의 1 수준인 2250명이었고요, 방송 시청률은 1.1%였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였다는 설명과 달리 해외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더욱이 나머지 두 장은 보시는 대로 방송화면을 캡처해서 첨부한 것이 전부라 사실상 20억짜리 사업이 단 한 줄로 결과보고서가 된 겁니다.

장관님, 국비가 20억이나 쓰였는데 달랑 한 페이지 보고서 보면 국민들이 '문체부에서는 20억을 한 줄 보고서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화면 좀 보시지요.

은평구가 제출한 사업비 산출내역은 더 놀랍습니다. 대관, 무대, 홍보, 관리비 등 다 합쳐서 20억 썼다고 달랑 한 줄 썼습니다. 한 장이 아니고 이제 한 줄로 20억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결과보고서, 이 정도 정산서만 있으면 문체부에서 충분히 20억 딸 수 있단.....

그런데 세금을 썼으면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썼는지, 무엇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결산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문체부가 그냥 돈만 주고 다 끝났다 하면 문체부는 국민 세금 송금처밖에 더 되겠습니까? 답변을 못 하시네요?

장관님, 더 황당한 것은 집행 과정입니다. 은평구가 콘진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자를 일반경쟁으로 선정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은평구는 얼마 후에 경쟁입찰 공고했습니다. 공고에는 전문성과 창의성이 확보돼야 하는 사업으로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우수 제안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불과 닷새 만에 입찰 취소합니다. 그러더니 은평구는 한 달 안 돼서 MBC를 특정합니다. 정부광고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경쟁입찰로 집행하겠다고 약속해서 국비 지원 받아 놓고 또 그렇게 경쟁입찰하겠다고 공고해 놓고 5일 만에 지자체가 마음대로 사업 방식을 바꿔서 경쟁도 취소하고 MBC에 20억 몰아주는 게 허용되는 겁니까? 문체부가 이래도 됩니까? 정부광고 사업이 경쟁입찰을 피하는 계약 우회로가 된 거 아닙니까?

작년 추정 심사 당시에 혹시 이런 의혹이 있어서 특정 방송사, MBC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소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정 방송사를 전제로 하기 어렵다 했던 사업 예산입니다. 문체부는 이 추정예산이 MBC로 갈지 몰랐다고 얘기한 거지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MBC가 그동안 주도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이네요. MBC를 위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걸 모르고 예산 편성했다면 문체부는 바보처럼 속은 거고요.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했다면 짜고치는 예산 밀어주기입니다.

장관님, 사업 집행 내용을 보면 핵심 사업, 관객 목표, 사업자 선정 방식이 모두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체 예산 20억 그리고 결과적으로 MBC한테 가는 거 그것만 안 바뀌었어요. 장관님, 경쟁 절차도 하겠다 해 놓고 없애고 정부광고 방식으로 뒤바꾸는 과정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왜 바뀌었는지, 예산은 왜 그대로인지, 사업 성과는 어떻게 된 건지 사업 전반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장관님, 특정 감사 진행하시고요. 비정상적인 집행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애당초에 준비됐던 것과 나중에 집행된 결과가

다르다는 것도 저희가 뒤늦게 계속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특정 감사를 하시고 환수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정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최취영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동통신사의 영화티켓 할인 정산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영화계에서 제기해 온 문제입니다. 저도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질의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통신사가 극장으로부터 영화티켓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는 마치 정상 가격에 할인해 주는 것처럼 판매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이나 할인비용이 영화산업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당시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와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는지를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제가 문체위원이 돼서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동안 영화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소극적인 역할을 해 오지 않았나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1월 국회에서 영화티켓 할인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도 열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문화체육부 패널에게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체부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라든지 또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직접 물어봤는데 당시 문체부 패널께서는 사실상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님, 문체부는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영화산업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지요. 그렇다면 공정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체부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문체부가 영화산업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이해자 간 협의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이 문제는 장기간 입장차가 너무나 커서 미결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아주 난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민한 주제이다 보니까 공정위의 결과를 계속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방어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화산업이 이대로 계속 좌돌 수는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화 관련된 모든 분들이 모여서 지금 상생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어젠다를 올려서

뭔가 방법을 찾도록 하고요.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문체부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장관님,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영화계가 문제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당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사실 이런저런 경로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통신사 할인과 관련해서 극장과 제작, 배급사 사이의 사전협의와 사후 정산을 명확히 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고 둘째, 실제 할인전 가격과 할인 후 가격 또 할인 내역을 정산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자. 그리고 셋째,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실제 결제액과 발권액의 차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또 넷째, 영비법상 입장권 가액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하자 이런 등의 제안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정위의 법 위반 판단과는 별개로 문체부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개정이라든지 정상구조 투명화, 통합전산망 개선, 입장권 가액 개념 정비 등을 추진할 그런 계획 있으신 거지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아까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도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해묵은 문제라고 하셨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극장이라든지 통신사, 제작사, 배급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전에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화계에서도 상생협의체라든지 또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좀 더놓고 이해하자고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주관을 하셔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분들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고 또 요즘 아시겠지만 상생협의 민간협의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영화산업이 요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영화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화는 지금 어느 특정 생태계에 있는 특정 그룹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나머지는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모두 다 지금 심각한 위기상태에 처해 있는 게 영화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있고요. 모여서 어떻게 하든 한국영화를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담아서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간단히 하나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석을 하고 이정문 간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요. 다른 아니라 의장님이 문화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막연히 잘나가는 산업에 대한 진흥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놓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수차례 또 강조하시기도 했고 제가 때마침 문화산업 관계자분들 의장님을 찾아뵙는 자리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 이상으로 또 중요

하다고 생각해서 잠시 이석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나 이런 대형 OTT, 외국계 OTT 관련해서 우리 산업의 생태계 구조를 질식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 이것들이 K-문화, K-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돼야 되는 제도적 허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또 여기 계신 부처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초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우리도 숙의하는 과정들 또 경청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소위 매절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넷플릭스에서 일회적인 보상과 더불어서 이후에 기존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비의 방식인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이 결국은 창작자, 창작물 생산과 유통 모든 절차를 다 거치더라도 가장 큰 주된 에너지, 본질적 에너지를 투입했던 창작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다라는 사실.

이후에 한국 창작자들이 고사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넷플릭스라는 대형산업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한국에 남아 있던 문화 저력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은 사라지는 거지요. 그게 염려돼서 여러 가지 통상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또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박수받고 환호할 만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특히 현행법상의 저작권법 자체가 흡사 매절계약을 그대로 박아 놓은 듯한 예전의 구조에서의 저작물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영상제작자와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이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 특약이 없으면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기타 이를 통한 출연자의 복제권이나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도 특약이 없으면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저작물들을 유통하던 방식에 기인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사회적 합의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이 등장하고 이 구조를 다시 정당하게 저희가 조정하는 역할도 사실은 정책입안자들로서 또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로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된 고민들 혹시 조금이라도 숙성시킨 고민들이 있는지 장관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지금 영화, 영상에서는 다른 분야와 달리 종합적으로 제작사가 권리를 이양받은 상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2차 실적 이윤에 대해서는 창작자들에게 재분배되는 그 구조가 안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 문제였고 많은 창작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건의해 주시고 계시고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배급사나 제작사 혹은 그런 OTT 모든 것이 의견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거기에다가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미디어 환경은 변화하고 있고요. 여기서 최적의 창작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는 저희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그런 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도 어쨌든 제작자 등에 의해서, 이 저작권법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다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플랫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더 많이 접근을 하고 많이 소비됨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산업구조를 공평하게 만들 수 있는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기존의 저작권법 구조에 간혀서 생각을 한다면 새로운 산업에 대응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일 것 같고요. 특히 유럽 같은 사례에서는 별도의 보상체계를 국내법으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보태지고 또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축구 문제라든지 어떤 측면에서는 필드에서의 요구가, 각 분야에서의 요구가 또 부처에서도 그 고민을 받아 안기 위한 공론의 장도 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민들에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새로운 산업 영역에 의해서 창출되는 구조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조적 모색, 우리 부처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유럽의 사례도 있고 미국의 사례도 있고 또 미국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FTA 같은 협정도 있고, 그 속에서 저희가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경쟁력, 창작의 역량들을 더 키워 나갈 거냐는 정말 저희한테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계속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다자적 통상구조 기존의 질서가 모두 무너지는 때이기 때문에 다자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그 안에서의 새로운 판로를 찾아내는 자신감도 저는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종료되었는데도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신청자가 세 분이 계시는데요. 노종면 위원님, 최민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순서대로 3분 이내로 추가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종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제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웬만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관계와 관련된 것이어서, 저는 용산 아파트 건립에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논점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이라면 여야 불문 다 회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점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묘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종묘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 유산의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용산 개발 문제는 녹지 훼손의 문제입니다. 이 논점이 다른 것을 이렇게 같이 결부시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의 포토존 거기 사진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리고 AI 이미지라고 뒤에 아파트들이 중앙에 찍 나열돼 있는 것, 그 각도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계획을 우리 정부 여당 누구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이 용산 공원 부지, 그 큰 땅 중에서 이미 훼손된 몇 군데, 외곽에 있는 몇 군데에다가 아파트를 세울지 말지에 대한 그 논쟁을 마치 용산공원을 다 뒤집어엎어서 아파트를 만드는 것처럼, 위원님께서 제시한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뺄 뚫린 데 있잖아요. 거기는 북쪽으로 바라보는 각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

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아파트 대상 부지, 서쪽으로 있는 캠프킴, 거리도 떨어져 있지만 아예 방향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미군의 수송부 부지, 그것은 아예 동쪽이에요. 그리고 옛 방사청 건물 부지가 그나마 중앙에 조금 걸쳐 있는데 그것도 서북단에 있고요 거리가 무려 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로 그 뺄 뚫린 직사각형의 공간 안에 남산타워가 걸리지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것으로는 그 방향으로 아파트가 안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장관님께서 제가 모르는, 박물관 근처에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전혀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사실관계는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관님께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법카, 축구협회 법인카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료제출 자체를 안 하잖아요. 문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할 계획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감사는 저희는 특별감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아직 시기를 보고 있는 중이고. 예전에 저희가 감사 들어갔을 때는 법인카드 내역을 다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런 증거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요구하는 혹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국회의 기능·역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축구협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이것은 협조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의당 해야 되는 일이라는 부분들을 저희도 설득하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국회는 국회대로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 정부도 자료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 홀드백 담당 차관이 누구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접니다.

○최민희 위원 지금 홀드백 곧 협약할 것이지요, 홀드백?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협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홀드백이 5개월간 다른 플랫폼에서 상영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그것은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하여 민변하고 참여연대하고 소비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저도 봤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홀드백이 문체부가 추진할 때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배급사협회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소비자단체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논의 진행 내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꼭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3월 4일 날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행사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최민희 위원 원래 한국문화원은 올해 7월에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 그런데 주필리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그렇지 않고 두 번 하려고, 원래 계획이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아니, 주필리핀 한국문화원은 과거에는 연 2회씩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올해도 연 2회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애당초 계획에.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연 1회 하기로 한 것을 영부인이 참석하기 때문에 한 회 늘린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답을 하라고 지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그것은 2023년부터 매년 2회씩 했던 것이고 올해 초 계획에도 2회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리고 그게 3월 4일인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필리핀 국민 방문하시고 영부인께서 관련 행사에 참여하면 문화원 측이나 교민들은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영부인이 참석하시면서 아무래도 초기보다 행사 인원이 늘었겠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보다. 그러니까 예산이 5000만 원 는 것도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예산이 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3월에 하기로 한 예산은 현지에 있는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가 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덜 반영이 됐던 게 뒤늦게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필리핀만 지원한 게 아니고요 한 여섯 군데 문화원에 저희가……

○최민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건에 따라 늘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이 5000만 원 예산 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맞습니다.

○최민희 위원 예, 그 말씀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영부인이 지시해서 없는 행사가 생긴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전혀 아닙니다.

○최민희 위원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최민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규모가 커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예산은 늘었다가 또 때로는 줄이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할 경우 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라 이런 취지로 여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혀 문제없는, 애당초 계획된 대로 진행된 행사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허민 청장님, 용산공원, 2007년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20년간 준비해 온 300만 m² 국가 공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국토부가 주택을 짓겠다고 했다가 서울시 반대로 일단 협의가 펜딩(pending)된 상태입니다. 1차관은 공원 부지에 어린이정원, 장관은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 아파트 부지를 거론했는데요.

청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 국토부와 협의 중인 사안이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청 차원에서는 없고요.

○조은희 위원 없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용산 부지에 대해서 아까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예산 청에서는 현재 외곽 쪽에……

○조은희 위원 제가 여쭙본 말만 해 주십시오. 제가 여쭙본 말은, 없지요?

그런데 용산공원 부지 관련해서 유산청과 국토부가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용산공원을 시범 개방하던 2002년 3차 변경계획 때 한 번, 2024년 4차 변경계획 때 국토부가 두 번 의견을 물었고 유산청이 답변 회신도 했습니다.

PPT 화면 두 번째 좀 보세요.

당시 답변 내용을 보면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먼저 하고 결과보고서를 보내서 협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역사문화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현상 변경, 즉 개발한다고 손대기 전에 유산청에 허가받거나 신고부터 하라고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 보내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죄송하게도 2002년에 대해서는……

○조은희 위원 2024년 얘기입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보고받은 적이 아직 없고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용산 지구에 대해서는……

○조은희 위원 그러면 다시 바뀌서 묻겠습니다.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게 유산청과 협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조은희 위원 해야 되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왜냐하면 사업이 발생하면……

○조은희 위원 화면을 다시 보시지요.

용산공원 부지는 2005년 문화재청이 미군 협조를 받아서 직접 들어가서 지표조사를 했

습니다. 문화재 250점을 확인했고요. 조선시대 제천행사를 치르던 남산터, 고려와 조선시대 도자기, 일제강점기 건물 226동에 서대문형무소보다 먼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군영 감옥도 있습니다. 또 방위사업청 부지 안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674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도 있고요. 어린이공원 부지에는 조선 청년 20만 명 전쟁터로 몰아넣은 강제동원터도 남아 있습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계획을 세우는 기관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고 청장님은 개발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은 지금 용산공원 문제는 미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일일이 여기서 열거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에 대해서 만약에 어떠한 부분적인 사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가운데서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방향에서는 현재 용산공원 부지 밖에 있는 캠프킴에 대해서는 미군이 요구해서 발굴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 그 위치만 발굴조사를 해서 현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게 다 20년 전의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예, 최민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제가 마무리도 안 했는데…… 하십시오.

○**최민희 위원**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저는 끝난 줄 알고……

○**조은희 위원** 하십시오. 다음에 또 하지요.

○**위원장 이재정** 최민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문화예술위원회에, 우리가 남북교류 과정 중에 북한 그림을 들여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로 전시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 주체가 모호해서 좀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위원회 쪽에 그 관계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고받길 원해서 실무 차원에서 좀 접촉을 해 봤더니 그게 지금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위원회 쪽에, 사실은 북한의 그림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다면 그 관리가 잘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우리나라에 있는 게 맞는지 어떤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위원회에

저희 방에 보고를 좀 해 주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정 예,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련해서 점검하시면 당연히 위원장이고 간사고 그냥 위원님이고 관계없이 당연히 요청하시고 또 점검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1분도 안 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예, 조은희 간사님.

○조은희 위원 청장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보면 청장님이 아실 거예요. 보면 개발계획을 세우는 기관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리고 협의 결과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이 상당하면 개발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자료 일체를 본 의원실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용산공원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협의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용산공원에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위원님은 김석기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진선미·조은희·임오경·윤용근·김승수·조계원·김재원 위원님 그리고 저 위원장실입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함께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휘영 장관, 허민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문화예술법안심사(9인)	노종면 ◎이정문 임오경 정준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5)
	배현진	국민의힘(3)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윤용근 정연욱	
	김재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체육관광법안심사(7인)	노종면 이정문 조계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4)
	김석기 김승수 ◎조은희	국민의힘(3)
예산결산심사(9인)	임오경 정준호 조계원 ◎진선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5)
	김석기 김승수 정연욱	국민의힘(3)
	김재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5인)	김윤덕 노종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3)
	◎윤용근 조은희	국민의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4인)

김석기 김승수 김재원 노종면 배현진 윤용근 이재정 이정문 임오경 정준호
조계원 조은희 진선미 최민희

○출장 위원(1인)

정연욱

○청가 위원(1인)

김윤덕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김영일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차관보 김기성

대변인 임영아

감사관 남가영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문화미디어산업실장 김재현

종무실장 김도형

국민소통실장 공형식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체육국장 이선영

정책기획관 이준호

문화정책관 명수현

예술정책관 이용신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콘텐츠산업정책관 최성희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김경화

저작권정책관 최영진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소통정책관 장경근

소통지원관 권수진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해외홍보정책관 이은복

관광정책관 강동진

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체육협력관 강대금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채수희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자연유산국장 황권순

무형유산국장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 김동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범헌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윤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대한체육회
회장 유승민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편장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최완주

【보고사항】

○의안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9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0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05)

이상 3건 7월 31일 회부됨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 7. 31.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60)

이상 3건 8월 3일 회부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7.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97)

8월 10일 회부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6)

이상 2건 8월 11일 회부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1.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9)

8월 12일 회부됨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49)

8월 13일 회부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8.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2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8.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29)

이상 2건 8월 19일 회부됨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0.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69)

8월 21일 회부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1. 유명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89)

8월 24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4.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13)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 8. 24.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37)

이상 2건 8월 2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7. 2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0)

7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31.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59)

8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4.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0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4.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32)

이상 2건 8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10.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30)

이상 2건 8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예비심사기간 통보

2025회계연도 결산

(2026. 5. 2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9079)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이 8월 24일 09시 30분까지로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부제출일	소관부처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	제36517호	2026. 7. 21.	2026. 7. 21.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639호	2026. 7. 21.	2026. 7. 21.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2호	2026. 7. 23.	2026. 7. 28.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6호	2026. 7. 30.	2026. 7. 30.	국가유산청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36524호	2026. 7. 24.	2026. 8. 10.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43호	2026. 7. 27.	2026. 8. 1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5호	2026. 7. 28.	2026. 8. 1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6532호	2026. 7. 28.	2026. 8. 10.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시행규칙	제644호	2026. 7. 30.	2026. 8. 1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554호	2026. 8. 4.	2026. 8. 10.	문화체육관광부